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安保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美·日貿易紛糾展望

A PERSPECTIVE OF U. S. - JAPAN TRADE DISPUTE

研究執筆責任 朴 宇 熙

(略歷) 서울大 商大 卒 (1958)
서울大 商大 助教授 (1967)
英國만체스터大學院 修了 (1968)
英國옥스포드大 臨時 副教授 (1974)
現 서울大 社會科學大 貿易學科長

刊 行 責 任 金 泳 植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要 約]

지난 1年間 新聞, 放送, TV는 繼續 「불붙는 列強의 通貨, 通商戰」 「달라弱勢의 背景」 및 「美,日經濟戰爭再燃」 「엔時勢上昇의 뜻」 「180엔線 무너졌다」 등 美国과 日本間의 通貨게임을 보도하고 있고, 最近에는 폴사무엘슨 (Paul Samuelson) 教授를 위시해 경제학계의 일각에서도 앞으로 數年間に 美1달러對 100엔線에 까지 下落할 可能性마저 있다는 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는등 우리의 가장 가까운 美国을 中心으로한 通貨貿易戰爭은 絶으로 보아 끝을 모르는냥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美,日간의 通貨貿易戰爭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그 背景과 展望은 어떠한고 이러한 격동이 韓國經濟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지 美国과 日本을 가장 큰 經濟去來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우리로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자체가 오늘날 世界經濟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難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국적경제의 성격으로 보아 앞으로 이러한 분쟁은 어느때건 또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政治經濟學的인 측면에서도 이론적으로 研究가 繼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 經濟가 巨大化 및 國際化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싸움의 대상이 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으므로 불이 발에 떨어지기 전에 國際通貨貿易의 제특성을 똑바로 알아야 할

때가 닥쳐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는 것이다.

通貨, 貿易계임은 냉엄, 비정한 것이고 특히 國際間的 通貨去來에는 戰爭을 불사할 정도로 國家利益이 모든 것을 앞서고 있다. 이번에 美國이 西歐諸國과 손을 잡으면서 日本을 맹공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日本 역시 이때까지 같은 노름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實利면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물리게 되어 있다.

美國이든 日本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美國의 경제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973年 10月 2日 오일·쇼크이후만 해도 여러번 있었던 經濟戰略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오일·쇼크가 일자 美國은 「키친저」의 입을 빌어 中東產油國에 무력행사의 위협을 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年동안 선진공업국들의 成長, 失業, 인플레이, 貿易收支는 각기 다른 양상을 띄면서 변모되었고 나라마다 현격한 차이를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중 美國, 西獨, 日本이 앞서 있고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등 기타 OECD제국은 아직까지 힘에 벅찬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經濟의 여러 조정과정중 이제는 美國, 西獨, 日本등 세계경기의 機關車國간에도 회복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美國은 자중지란을 일으켜 日本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겨냥하게 된 것이다. 西獨과 OECD제국도 美國에 동조하여 日本에 壓力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무기는 外換率 즉 美달러 貨價值下落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1944年 金·달러本位制의 固定換率制 당시 만해도 이 모델의

기본구상은 美國달러의 세계지배에 있었다. 그러나 선진각국경제의 성장과 구조가 바뀔에 따라, 美달러의 生産的地位는 무너지고 지금은 金도, 美달러도, SDR도 아닌, 國際通貨에 관한 특정한 제도가 없는 無政府狀態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美國의 달러가치저락의 고의적인 방치라할 수 있다.

世界經濟는 이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한 나라의 景氣가 다른 나라에 즉각 영향을 미칠만큼 지구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美國의 GNP가 금년에 2兆달러, 소련은 그 절반, 日本은 이에 약간 하회할 정도이며 國際貿易 總額은 1兆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규모에 비해 금년말까지의 美國의 貿易적자가 300億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日本과 西獨의 外貨保存度는 이미 300億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產油諸國의 貿易흑자는 400億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에 日本의 엔貨가 史上 처음으로 1美달러당 200엔線을 넘어, 지금은 180엔을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 美國은 「300億달러戰爭」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다. 지난번의 여러 경제전략에 이어 이번에는 換率政策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것 뿐이며 이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日本에 대해 輸入自由化와 国内 景氣浮揚 및 經濟構造의 개편까지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美國의 대일수입에 보호정책을 쓸 것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서슴치 않고 있다.

美國의 현 300億달러 貿易적자 예상은 기실 過剩石油輸入(年末까지 450億달러) 때문이고 보면 이번 조치는 오일-에너지-景氣-失業, 成長, 인플레이-貿易-通貨-資本에 연관된 일련의 전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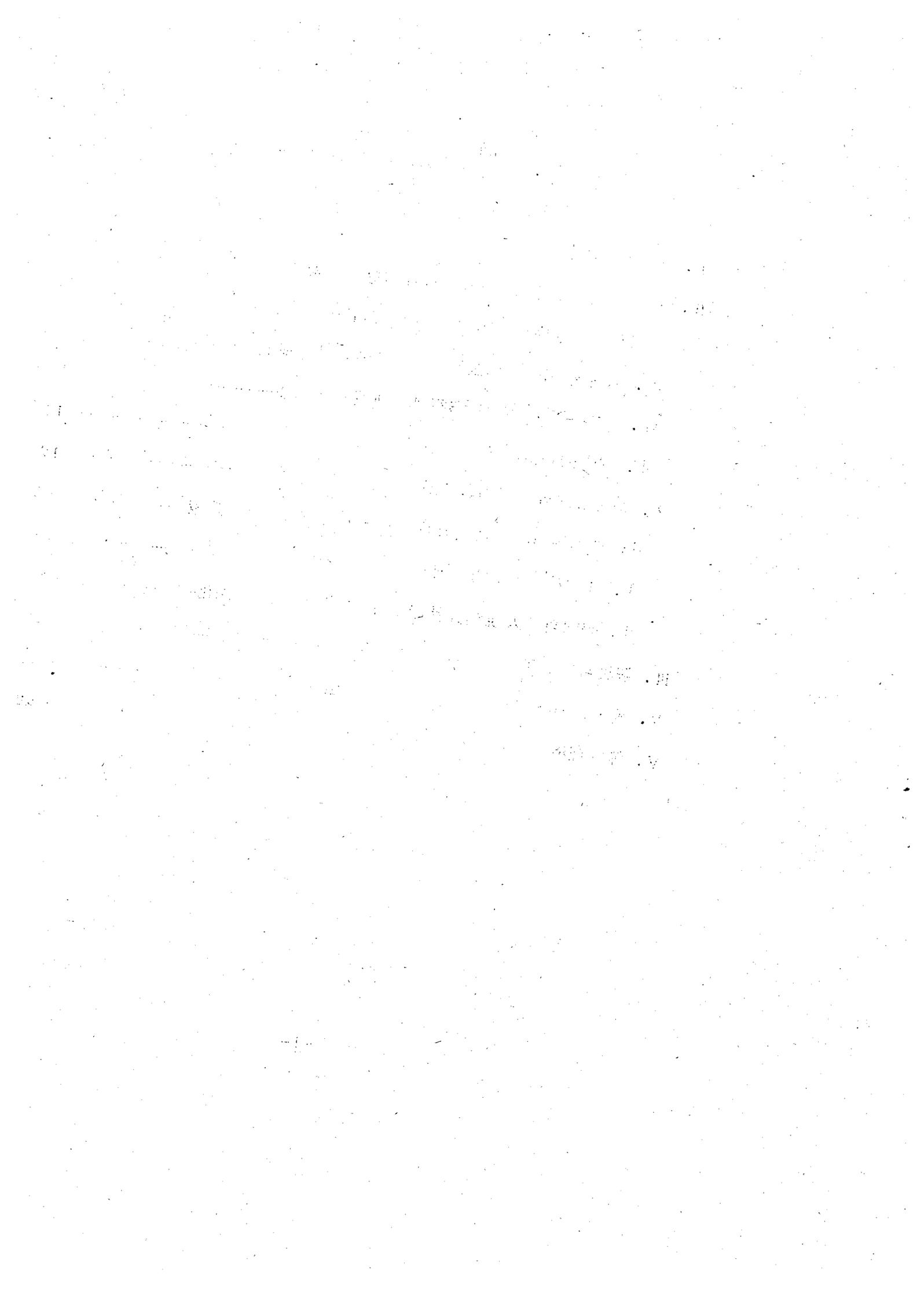
밖에 볼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先進工業諸國사이의 싸움은 資本主義건 共產主義體制이건 新帝國主義(neo-imperialism)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고, 이번에는 日本에 더 큰 허물이 있으므로 美國과 이에 동조하는 서구제국에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이스라엘의 6日戰爭, 印度-파키스탄의 17日戰爭, 아프리카內亂등이 모두 數億달러 정도의 싸움이라면 지금의 國際通貨貿易戰爭은 300億달러 단위의 큰 戰爭이다. 여기서 民을 친구와 미워할 敵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들어 美國의 恩貨高騰 戰略은 실패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日本經濟는 구조적으로 原資材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輸出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恩貨高騰으로 원자재수입값 하락이 輸出品값 상승을 앞지르고 있고 따라서 貿易黑字가 감소될리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實証되고 있으므로 지난번의 본 정상회담에서는 美國의 態度가 어느정도 누그러졌고 日本도 따라서 態度를 누그러 뜨리는 國際케인지어니즘(International Keynesianism)的 調整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韓半島를 둘러싼 제반정세는 美·日通貨貿易戰爭으로 큰 영향을 불면하고 있고, 특히 신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확대 때문에 우리들의 지혜와 인내를 더한층 요구하는 激動의 過中으로 우리는 지금 휘말려 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目 次

I. 序 言	3
II. 美·日通貨 貿易戰爭의 複合的인 背景과 推移	6
1. 國際通貨秩序의 不安定과 通貨戰爭	7
가. 브레튼 우즈 體制下의 通貨秩序와 鎔貨	7
나. 變動換率制로의 移行과 鎔貨의 高騰	10
다. 國際的通貨戰爭	16
2. 美·日間의 不均衡貿易	19
가. 日本經濟의 高度成長과 輸出指向的 貿易政策	19
나. 日本의 累積的 國際收支黑字	27
다. 美國의 大規模貿易赤字와 對日逆調의 深化	37
III. 解決의 摸索	52
IV. 美·日經濟에 對한 影響과 展望	61
V. 韓國經濟에 對한 影響과 對策	68



I. 序 言

資本主義先進工業諸國은 싸우면서 화해하고, 걸으려는 화해하는척 하면서도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하는 냉엄한 屬性을 지니고 있다.

싸운다는 것은 네오·임페어리얼리즘(neo-imperialism)의 性格을 말하는 것이고 화해한다는 것은 國際的 케인지어니즘(international Keynesianism)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 先進工業諸國 특히 이때까지 가장 가까이 지냈고 앞으로도 가까이 지낼 美國과 日本사이에서도 通貨에서, 貿易에서, 投資와 資源 및 技術과 人間資本에서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더우기 國際通貨에서는 격렬한 戰爭을 치르고 있다.

그러는 한편 75년 랑부이에에서, 昨年에는 런던에서, 올해에는 西獨 본의 샤움베르크宮에서 西方 7個國頂上급 人物들이 모여 좁은 地球위에서의 相互間的 經濟를 調整, 調和있는 世界經濟를 이룩하고자 화려한 舞台演劇을 연출한바 있다.

그런데 戰爭이란 相互間的 利害關係가 累積的으로 相衝되어 그 해결의 돌파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반해, 經濟戰爭은 武力的인 戰爭과는 달리 타협을 통하여 紛爭을 해결하려하다 問題點들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할 수 있다.

오늘날 國際經濟는 美國이 世界經濟에서 指導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多極化되어 가고 있고 相互依存關係가 深化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世界經濟秩序는 安定을 잃기가 쉬우며 잦은

紛争의 要素가 언제나 内包되어 있다. 各国은 自國의 利益을 앞세워 保護貿易主義가 膨脹되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重商主義 時代가 到來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것이 오늘날 世界經濟의 現實이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現實속에서 美国國際收支의 慢性的인 赤字, 日本國際收支의 累積的인 黒字는 兩國間의 貿易・通貨戰爭을 일으켰고 이러한 紛争은 사실상 日本 엔貨 時勢가 急騰하기 시작하였던 昨年 以後의 現속에만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엔貨의 実勢가 過少評價되고 있고 日本의 貿易黒字基調가 定着化되기 시작하였을 때 부터 내재하였던 것이다.

美国과 日本은 이러한 紛争을 해결하기 위해 1966年과 1972年 두번의 會談을 가진데 이어 1977年 12月 第一次 美・日通商會談, 1978年 1月 第二次 美・日通商會談을 開催하였으나 根本的인 問題點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日本 엔貨는 드디어 弗當 200 엔臺를 돌파하여 180 엔臺까지 時勢가 上昇하였고 브레튼우즈 體制下의 對美換率 360 엔의 거의 두배까지 評價切上되고 있다.

이러한 엔貨의 엄청난 高騰은 現在의 變動換率體制를 이용한 一種의 通貨戰爭의 結果이며 이것은 日本의 1977年의 180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貿易收支의 黒字와 110억달러의 經常收支黒字에 의한 黒字減少圧力과 특히 갈수록 심각한 對日貿易收支赤字를 경험하고 있는 美国과의 貿易紛争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국 通貨戰爭은 國際貿易不均衡의 結果이며 따라서 美・日間의

換率變動을 통한 貿易紛糾은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이 해소되지 않는
限 언제나 폭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동이 韓國經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輸出指
向的인 經濟發展 패턴을 갖고 있고 賦存資源이 부족하여 源資財의
대부분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對外依存性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 輸入
開放의 壓力을 받게 되어 輸入制限이 점차 철폐되어가고 있는 우리
로서는 커다란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本稿는 우선 美·日通貨·貿易戰爭의 背景과 推移를 살펴본 然後
에 兩國間에 어떻게 打決이 摸索되고 있는가를 고찰한 다음 이러
한 戰爭의 美國과 日本에 어떠한 影響을 주고 있으며 그 展望이
어떠한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우리經濟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II. 美·日 通貨 貿易戰爭의 複合的인 背景과 推移

1970年代 들어와서는 달러價値의 급격한 下落과 엔貨 및 마르크 貨價値의 暴騰은 國際通貨秩序의 危機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外換市場의 不安은 黒字国과 赤字国사이의 貿易収支 不均衡의 지속적인 拡大와 이에 대응하는 外換政策의 실시에 있으나 이러한 不均衡 拡大는 결국 黒字国 日本이 物價仰騰을 두려워하여 国内景氣振作에 의한 成長率提高를 기피하고 輸出을 通하여 国内景氣不振을 補填하려는 政策基調에 依하여 輸出増大를 積極的으로 억제하지 않고 있으며 反對로 輸入은 可能的 限 억제하려 하는 점과 美国의 原資材 備蓄 및 物價上昇에도 불구하고 景氣拡大政策에 依하여 輸入이 增加하고 있다는 事實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유독 日本에 대하여만 貿易不均衡의 責任을 들어 日本銀行의 外換市場介入中止, 関稅率引下, 非関稅障壁의 철폐, 完製品 輸入의 増大等を 要求하며 現在의 無政府的인 變動換率制에 의한 달러貨 價値의 大폭적인 下落을 방지하고 있어 의도적인 通貨·貿易 戰爭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있다. 현재와 같이 各国이 自國經濟의 安定과 成長을 위한 对内政策을 우선적으로 하는 管理變動換率制(Managed Floating System 또는 Dirty Floating System)下에서는 各国政府의 利害關係의 對立이 現今의 달러貨의 急速한 價値 下落이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계속적인 通貨의 不安을 若起시킬 가능성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美·日 通貨貿易戰爭은 여러가지 復合的인 要因이 作用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선 通貨激動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通貨戰爭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貿易不均衡과 關聯지어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國際通貨 秩序의 不安定과 通貨戰爭

가. 브레튼 우즈 體制下的 通貨秩序와 金貨

1930 年度の 國際的인 恐慌과 金本位制度의 崩壞는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摸索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二次大戰의 終戰 직후인 1944年 7月 美國의 뉴햄프셔 (New Hampshire) 州 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에서 44 個國 代表는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再建을 위한 機構의 하나로서 國際通貨基金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을 創設하였었다. 美國에 의해 主導되어 締結된 브레튼 우즈 (Bretton Woods) 協定은 화이트案이 채택되게 됨으로써 美國側에 有利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브레튼우즈體制 (또는 IMF 體制) 下에서는 美國만이 支払準備金을 모두 金으로 보유한 金本位國이고, 余他加盟國은 모두 金과 美國의 달러貨를 對外支払準備金으로 보유하여 달러貨와의 一定한 換率을 上·下振動幅 1% 以內로 유지하게 하여 달러貨만이 基軸通貨 (Key Currency) 로서 金과 一定한 交換比率을 유지하게 되고 他加盟國의 通貨는 달러를 通해 間接적으로 金과 交換比率을 가지게 되며, 또한 各 加盟國通貨間의 換率은 各 加盟國

通貨의 달러貨와의 換率을 通해 間接적으로 결정되게 되었다.

IMF 体制下에서의 金換本位制度는 金本位制度와 本質적으로 同一한 固定換率制度의 性格을 띠고 있으나 IMF 体制下的의 金換本位制度는 金本位制度와는 달리 換率振動幅의 上·下限線이 國際通貨基金(IMF)에 의해 任意的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金本位制度의 경직성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다.

國際通貨基金(IMF)의 設立當時 金1온스는 美國의 35달러로 評 価되었으며, 金과 달러貨와의 交換比率을 1온스당 35달러의 선에 고정시켜 놓아 各國의 通貨와 달러貨와의 交換比率을 一定線에 유지시킴으로써 換率의 安定性을 유지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 며 金과 달러貨와의 兌換을 허용하여 各國 通貨는 金 혹은 달러 貨와 交換되도록 한다는 것이 國際通貨基金 設立 당시의 基本的인 意圖였다.

이러한 IMF 國際通貨体制는 1950年代末에 이르기 까지 美달러를 基軸通貨로 유지하면서 安定的인 通貨秩序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二次大戰以後 1950年代까지의 유럽의 破壞된 經濟의 再建을 위해 美國이 마아샬 플랜(Marshall Plan)에 의해 막대한 資本을 流出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의 貿易收支黑字幅은 資本收支赤字幅을 초과하여 綜合收支의 黑字를 누릴 수가 있었으며 비 례 1950年代에 들어와서 유럽諸國 및 日本의 經濟發展과 生産性 增大에 의해 美國의 國際競爭力이 위협을 받고 막대한 軍事費支出 및 援助支出等에 의해 貿易收支의 黑字幅은 貿易外收支 및 資本收

支의 赤字幅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綜合収支는 赤字를 나타내었으나 國際収支赤字를 金の 売却에 의해 달러貨의 價値를 IMF 協定上의 純金 1 온스당 35 달러로 고정시킬 수 있었으며 加盟國이 保有하고 있는 달러는 一定評價로 金과 兌換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달러 保有國은 달러 保有에 대해 不安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달러貨에 대한 信認은 國際金融市場을 安定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外形的 安定에도 불구하고 通貨秩序의 内面에는 不安의 要素가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換率安定을 위한 固定換率制度 自体의 문제점으로 各國의 實質的인 換率이 무시되어 一國의 對內的인 經濟的 不均衡이 즉각 조정되지 않고 切上 또는 切下壓力이 누적되어 換率變動의 振幅이 갑작스럽게 커다랗게 나타날 可能性이 항상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國際通貨秩序 속에서 日本의 엔貨는 그 價値를 꾸준히 一定水準에 유지시키면서 高度成長을 이룩하는 뒷받침이 되었다. 엔貨는 戰後 日本經濟의 파탄에 対応하기 위하여 複數換率制를 유지하다가 1949年 4月 23日 달러당 360 엔 이라는 單一換率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엔貨는 國際通貨情勢가 극도로 혼란하였던 1971年 8月까지는 계속 달러당 360 엔의 換率을 유지하여왔었다. 그러나 1968년에 들어와 日本의 國際収支의 黒字가 定着되는 基調를 띄기 시작하면서 切上의 壓力이 加重되기 시작하였다. 50年代와 60年代 중반까지는 높은 成長率에도 불구하고 世界經濟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작고 貿易収支나 經常収支가 완전히 黒字基調를 나타내지 않은 상태이어서 아직 切上의 圧力이 가하여 지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1968年 1419억달러의 GNP와 세계 무역규모중 6.2%를 차지하는 무역규모를 갖는 經濟大國으로 成長하였다.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日本은 1968年 以後 엄청난 國際収支의 黒字에 의한 外部로부터의 圧力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360 엔 水準을 고집함으로써 自國通貨의 過小評價에 의한 利益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日本도 1971年 8月15日 닉슨政府가 金兌換 정지를 선언하고 基軸通貨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어 國際通貨秩序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면서 金換本位制度가 終焉을 고하게 됨에 따라 變動換率制로 移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內包되어 있었던 切上 圧力이 상당한 엔貨의 切上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 變動換率制로의 移行과 엔貨의 高騰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美달러의 地位는 加速的으로 弱화되어 갔으며 西유럽 各國間의 經濟力隔差가 두드러지게 表面化하면서 國際的인 通貨波動과 高金利波動이 계속되어 마침내 닉슨美大統領의 71年8月 金兌換停止를 基點으로 金換本位制가 崩壞됨에 따라 새로운 通貨體制를 摸索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美國은 71年 12月 스미소니안 體制를 成立시켜 ①美國달러貨의 7.895%評價切下와 多角的 通貨調整 ②固定換率制로의 維持 ③換率變動幅을 評價基準 上下 各 2.25%로 하는 等換率制度를 固定評價制로 다시 復歸

시키면서 外換市場의 혼란을 克服하려 하였다. 그러나 72年 6月 英國이 變動換率制로 移行하고 美달러가 강한 評價切下壓力을 받게 되어 두번째로 10% 評價切下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EEC는 이에 따라 73年 3月부터 共同變動換率制를 實施하여 스미소니안 體制는 瓦解되었으며 이것은 곧 IMF 體制의 固定換率制가 崩壞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스미소니안協定에 의하여 美國 달러에 對해 16.88%가 切上된 엔貨는 달러당 308 엔으로 換率을 결정하였으나 아직 實勢를 反映하는 切上幅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달러당 308 엔으로의 固定換率을 다시 堅持하게 된 엔貨는 처음에는 換率上昇의 效果가 一時的으로나마 나타나 輸出이 減少하였으나 이 效果는 日本의 輸出増大力을 계속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日本의 國際收支는 黒字基調로 정착하게 되었고 따라서 엔貨는 切上壓力이 또다시 加重되기 시작하였다. 日本은 이러한 壓力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1971年 6月, 1972年 4月, 1972年 10月의 3次에 걸친 대책을 發表하였으나 日本의 貿易收支의 黒字를 축소시키기에는 구체적이 되지 못하였고 단지 外部로부터의 壓力을 무마시키려는 皮相的인 것에 불과하였다. 美國의 日本에 對한 막대한 貿易收支赤字는 美國으로 하여금 日本에 對해 強力한 黒字國責任論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엔貨는 지속적인 切上壓力의 결과 1973年 2月 22日 달러당 264 엔까지 去來되면서 다시 變動換率制로 移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變動換率制는 換率의 調整을

市場機能에 맡기는 純粹한 變動換率制(Clean Floating System)가 아니라 自國의 對內均衡을 우선으로 하여 中央銀行이 外換市場에 介入하여 換率을 統制하는 管理通貨制度(managed Floating System 또는 Dirty Floating System)이어서 換率이 實勢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英鎊 역시 中央銀行이 介入하여 달러당 265 엔 線을 維持하였다. 그러나 1973年 10月 오일쇼크가 發生하자 石油消費의 거의 全部를 外國에서 輸入해와 充當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우기 原油價格引上에 따른 各種原資財價格上昇에 의해 國內物價는 上昇하지 않을 수 없었고 原料加工型 構造를 가진 輸出産業은 輸入原資財價格上昇에 의한 輸出製品價格上昇으로 因하여 國際競爭力이 惡化되어 輸出이 부진하게 됨에 따라 日本의 國際收支는 惡化되어 赤字를 示顯하여 이를 반영한 英鎊는 300 엔대 까지 하락하였다. 74年, 75年에 290~300 엔대에서 비교적 소강 상태를 보였던 英鎊는 76年에 들어와 國際收支가 好調를 보이게 됨에 따라 다소 上昇하여 285~295 엔대에서 變動하였다.

英鎊의 對美달러換率推移

日 字	英鎊時勢	日 字	英鎊時勢
1949年 4月	360	1973年 1月末	301
⋮	⋮	12月末	300
⋮	⋮	1974年 2月末	280
1971年 8月末	340	12月末	300
12月末	315	1975年 2月末	308
1972年 1月末	310	12月末	305
12月末	301	1976年 12月末	288

資料：日本經濟研究センタ「円の 實力評価」1971.12

엔貨에 대한 切上圧力은 1971年에 들어와 보다 직접적이고 表面化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73年~75年에 걸친 오일과동기간 동안에도 비록 종합수지는 赤字를 示顯하였으나 貿易收支는 계속 黒字를 기록하였고 76년에는 10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貿易收支 黒字를 기록하게 됨에 따른 強力한 黒字国責任論의 抬頭와 더불어 美国의 막대한 國際收支赤字로 因하여 달러貨의 價值가 더욱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美国의 対日攻撃은 1月中의 블루멘털 美財務長官의 日本輸出攻勢에 対한 非難에서 시작하여 2月中의 美議會에서의 엔貨에 対한 学界의 切上圧力表示, 3月中의 美国의 Morgan Guaranty Trust Co.의 엔貨 過小評價主張과 5月中순의 IMF Witteveen 專務理事의 黒字国責任論主張, 6月の OECD의 日本國際收支黒字擴大의 問題点 지적, 9月中의 블루멘털 財務長官의 엔貨切上 要求, 12月中의 美·日通商会談의 結果에 의한 美国의 달러지원의 거부等 年間 繼續적으로 政府와 民間部門이 合勢하여 表面化함으로써 엔貨에 対한 切上圧力을 더욱 加重시키면서 마치 總力戰을 연상케 하였다. 이러한 結果 엔貨는 日本中央銀行의 대규모 개입에도 불구하고 12月末에는 239엔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후 1978年1月1日 美国政府의 「달러」貨 支持를 위한 積極的인 外換市場介入 宣言과 公定割引率 0.5% 引上으로 「달러」貨 時勢는 2月中旬까지는 다소 回復하는 기세를 보였으나 「에너지」法案의 議會通過遲延, 石炭労組의 罷業, 美国의 國際收支가 短期間에 改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展望 等に 依하여 2月下旬에는 다시 史上

最低水準까지 下落하였다. 이에 따라 엔貨는 2月中 계속 上昇推移를 나타냈으며 3월에 들어와서 「마르크」貨 및 「스위스 프랑」貨에 묶여있던 投機資金이 「엔」貨에 集中됨에 따라 「엔」貨 時勢는 急騰하였으며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公定割引率 引下 및 海外短期資金流入規制措置를 發表하였으나 「엔」貨는 그후에도 계속 상승해 4月6日에는 달러당 218 엔을 기록하였다.

계속되는 달러貨의 弱勢에 대한 防衛策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하였다. 첫째, 4月11日 美「카터」大統領은 「인플레이」抑 制對策을 發表하여 安定優先政策으로 移行할것을 다짐하였으며, 둘째, 議회가 「에너지」法案을 通過시키지 못할 경우 石油輸入制限을 위한 輸入課徵金 賦課 等の 行政權 發動을 示唆하였고 셋째, 4月19日 美財務省은 5月23日부터 6個月間 每月 30萬「온스」의 金公亮計劃을 發表하였으며, 넷째, 5月11日 聯邦準備銀行은 公定割引率을 6.5%에서 7.0%로 引上을 하였고, 다섯째, 5月12日 所得稅減縮時期를 3個月 延期하여 1979年 1月부터 實施하고 그 規模도 250억 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축소한다고 發表하였다.

이러한 달러 防衛措置에 힘입어 4月中旬 以後 엔貨는 다소 下落하여 5月23日에는 1달러당 229 엔을 기록하였으나 6월에 들어와 다시 계속 상승하여 6月21日 210 엔을 돌파한 뒤 6月末에는 204.5 엔을 기록하여 1977年末 對比 17.4%의 가장 높은 上昇幅을 보였다. 7월에 들어와서는 中旬에 開催予定인 「본」頂上會談을 앞두고 엔貨에 대한 投機增大 等の 要因으로 엔貨는 7月24日 드

더어는 달러당 200 엔을 돌파하고 8月中 186 엔에서 不安하게 움직이고 있다.

77, 78 年度の 엔貨換率推移

(달러당)

日 字	換 率	日 字	換 率
1977年 2月末	282 엔	1978年 1月末	241 엔
3 "	278	2 "	230
4 "	278	3 "	223
5 "	277	4 "	220
6 "	268	6月23日	210
7 "	266	7月 5日	200.50
8 "	267	7日	203.25
9 "	265	10日	201.55
10 "	251	14日	202.75
11 "	245	21日	201.30
12 "	240	24日	200 엔돌파
		28日	190 엔돌파
		8月 7日	189.10
		11日	186.80

資料 : IMF 年次報告書, 1977

이같이 엔貨는 73年, 74年의 오일파동時期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切上圧力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결국 前述한 바와 같이 美国은

景氣回復으로 因하여 輸入需要가 增大되고 있는 反面에 日本은 景氣回復을 輸出增大에서 찾고있어 収支赤字 및 黒字의 轉중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意도적으로 달러價値의 下落을 傍觀 또는 誘導하면서 自國商品의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키려고 하고 있고 日本은 자기나름대로 最大限 버티면서 事態를 수습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팽팽한 줄다리기는 많은 兩國間 또는 先進國會談을 通하여서도 基本的으로 自國의 利益을 우선적으로 하는, 양보하지 않으려는 態度때문에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결국은 各國의 均衡的 發展을 阻害할지도 모르는 要因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다. 國際的 通貨戰爭

戰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現今 國際間的 通貨去來에 나타나고 있는 紛爭은 自國의 利益이 어떤것에도 優先하는 利己的인 各國의 態度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近間에 美國이 西歐諸國과 暗黙的으로 共謀하면서 유독 日本만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 內包되고 있는 것이며, 日本 또한 이러한 態度를 堅持하여 왔기 때문에 양쪽다 팽팽히 맞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現今의 美國의 日本에 대한 經濟挑發은 어제 오늘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日本의 黒字基調가 定着하기 시작할때부터 存在하였으며 1973年 10月2日 오일쇼크 以後만해도 여러번 經濟戰略의 一環으로 나타났었던 것이다.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美國은 產油國에 武力的인 壓力을 가하기도

하고 經濟的인 対応策 즉 農産物輸出價格引上, 金價의 引上, 多量의 武器販賣, 工産品 / 플랜트 및 技術의 高價輸出, 달러價値의 下落等을 通해 1천억 달러 以上の 油머니를 美国 및 OECD諸国으로 還流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景氣回復期間동안 先進工業國들의 成長, 失業, 인플레이, 貿易収支等の 정도가 相異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日本의 經濟的 先進國으로서의 機關車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美国은 日本에 대한 공격을 表面化시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기타 OECD諸國도 이에 동조하여 美달러貨價値下落을 戰爭手段으로 하여 日本에 대해 压力을 加重시키고 있다.

1945年 以後의 달러貨를 基軸通貨로한 IMF體制下的 固定換率制度에서의 달러는 世界市場을 支配할 수 있었으나 世界經濟가 多極化되어 감에 따라 美달러의 世界通貨經濟의 支配權은 사라지고 金本位制度도 金換本位制度도 또는 SDR을 基軸으로 한 通貨制度도 아닌 그렇다고 純粹變動換率制度(Clean Floating System)도 아닌 管理變動換率制度(Managed Floating System 또는 Dirty Floating System)가 使用되고 있는 無政府狀態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美国이 黒字國인 日本에 대해 戰爭의 手段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現今에 크게 거론되고 있는 달러價値의 下落이다.

世界經濟는 점점 더 밀접히 關連되어 가고 있어 一國의 景氣는 다른 國家의 景氣에 즉각적으로 反映되어 影響을 미칠 정도로 가까워 져가고 있다. 今年末까지의 美国의 貿易赤字幅은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며 日本과 西獨의 外貨保有高는 이미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갈수록 深化되어가고 있는 貿易不均衡에 依해 日本의 엔貨가 드디어 달러당 180 엔을 돌파하여 美·日間の 戰後 換率水準의 약 半으로 달러價值가 下落했다는 것은 美國이 「300억달러 戰爭」을 이미 도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단지 通貨戰爭은 여러가지 直接的 經濟戰爭手段中 그래도 가장 間接的인 換率政策으로 經濟戰略을 策定한 것이지 이것으로도 終局的인 解決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對日輸入에 對한 保護政策을 取할 것이라는 壓力을 가하게 될 것이다.

美國의 300억 달러가 넘을것이라고 예상되는 貿易赤字는 스스로의 責任을 회피할 수 만은 없다. 이러한 美國의 赤字幅은 備蓄用 過剩石油輸入에도 커다란 原因이 있다. 美國은 이러한 責任을 外部에만 轉嫁시키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日本에 對한 壓力은 오일-에너지-景氣-失業, 成長, 인플레이-貿易-外換率-資本에 聯關된 一聯의 戰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日本에 對하여 요구되어온 世界景氣浮揚策으로서의 機關車論에도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日本은 그 産業構造가 輸出指向的으로 되어 있어 景氣浮揚을 輸出增大에서 찾게되며 이것은 다시 貿易収支 黒字를 增大시켜 더욱 深化된 貿易不均衡을 若起시킴으로써 또다른 通貨秩序의 不安定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今의 通貨不安을 解消하기 위하여 美國은 特히 石油消費와 인플레이션억제, 달러貨防衛에 積極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日本은 國內

物價가 上昇하는 限이 있더라도 世界通貨秩序의 安定이 長期的으로는 自國의 經濟의 安定에 必須不可欠이라는 信念으로 景氣浮揚을 爲해 最大限의 努力을 기울일 必要가 있다.

어쨌든 美·日間의 이러한 對立은 新重商主義의 生態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서로가 打合點을 찾아 解決이 이루어 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再燃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2. 美·日間의 不均衡 貿易

가. 日本經濟의 高度成長과 輸出指向的 貿易政策

엔貨의 價値가 78年 8月 現在 戰後 IMF 體制下에서 成立된 달러當 換率의 거의 2배가량 上昇하였는데도 불구하고 國際經濟理論 上의 換率下落效果를 보이지 못하고 日本의 輸出은 反對로 持續적으 로 增加하고 있으며 貿易收支赤字國으로 부터 強力한 輸出抑制措置를 취하라는 壓力을 받으면서도 과감히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通貨·貿易戰爭의 불씨가 되고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日本의 隣近窮乏化的인 經濟政策에도 問題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日本의 輸出指向的으로 成長한 經濟構造 따라서 輸出에 生死를 걸 수 밖에 없는 日本產業構造에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現在의 美·日間 貿易不均衡의 背景을 이해하려면 日本經濟의 成長過程을 살 펴볼 必要가 있다.

終戰直後 日本經濟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美國의 援助에

의하여만 生存할 수 있었던 극도로 피폐된 상태였다. 国民1人当 實質總生産이 戰前의 50%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戰爭동안의 과다한 軍費支出의 영향과 戰爭物資生産에 全産業이 利用되었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必要한 物資의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蔓然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世界經濟秩序下에서 戰爭期間동안 發達한 高級技術을 바탕으로 安定된 成長을 할 수 있었으며 1950年代 初期에는 韓國戰爭에 의한 特殊需要로 말미암아 日本經濟는 활기를 띠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賦存資源이 매우 貧弱한 日本으로서는 經濟發展과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을 위하여서는 輸出擴大만이 그 유일한 돌파구였다. 따라서 生産製品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로 生産力을 發展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밖으로는 原資財의 安定的 供給과 製造販路의 擴大를 위한 貿易伸張이 必須的인 과제였다. 이에 따라 日本은 輸出增大와 不要不急한 輸入抑制에 最大限의 政策比重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外換面에 있어서는 이러한 政策目標를 위하여 經濟復興資財의 確保에 必要한 外貨資金의 調達을 위한 外貨의 取得 또는 取得外貨의 効果的인 利用이 필요하여 嚴格한 貿易 및 外換管理体制가 形成되었다.

終戰直後 보잘것 없었던 日本貿易規模는 經濟復興이 進行되어 急速한 經濟發展을 이룩하게 됨에 따라 全般的으로 擴大되어 갔다. 1950年代 後半부터 擴大基調에 들어선 貿易은 1955년에는 284억

달러의 綜合収支黒字를 示顔하게까지 되었다. 더우기 日本의 輸出 增加率은 世界 貿易 伸張率을 上廻하여 1948年 日本輸出이 世界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0.5%이었던것이 1955년에는 2.2%까지 增加하였다. 한편 輸入도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原料輸入이 增大하게 되어 增加趨勢를 보였다.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日本貿易比重推移

(單位：百萬달러, %)

	1938	1948	1955	1965	1971	1975
世界輸出	23,500 (100.0)	57,300 (100.0)	93,100 (100.0)	186,400 (100.0)	348,100 (100.0)	866,300 (100.0)
日本輸出	1,109 (4.7)	258 (0.5)	2,011 (2.2)	8,452 (4.5)	24,019 (6.9)	55,844 (6.4)
世界輸入	25,400	63,500	97,800	197,400	364,100	896,700
日本輸入	1,070 (4.2)	684 (1.1)	2,471 (2.5)	8,169 (4.1)	19,712 (5.4)	57,881 (6.5)

資料：GATT年次報告, 1977.

특히 1959년에는 對美輸出이 급격하게 增加하여 對美貿易収支가 黒字로 나타나게 되면서 美國은 日本에 對하여 輸入制限을 요청하게 까지 되었다. 그러나 비록 50年代에 들어와서 엄격하였던 貿易 및 外換管理体系가 緩和되기 시작하였을지라도 輸出增進, 輸入規制라는 貿易政策의 基調는 계속되었다. 즉 日本은 50年代에 걸쳐서는 保

護主義에 立脚한 輸入制限, 輸出振興이라는 政策을 계속 追求하여왔다. 60年代 들어와서도 經濟發展의 上昇趨勢는 계속되어 國民總生産額이 1960년에는 430억 달러이었던 것이 1965년에는 880억 달러로 5年동안 2배이상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60年代 후반의 世界經濟情勢의 不安한 움직임 속에서도 日本經濟는 每年 대략 20%의 伸張勢를 나타내는 輸出의 加速化와 더불어 戰後 最長의 好況을 누렸다. 이러한 發展은 日本의 對外的 地位를 높이게 하였으며 마침내 1967년에는 輸出이 100억달러를 돌파하였고 1968년에는 GNP가 西獨을 앞지르고 自由世界 第2位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하였다. 輸出이 급속하게 增加함에 따라 國際收支는 계속 黒字를 나타내게 되었고 따라서 外貨保有高는 점점 累積되어 1965년에는 20억달러를 넘었으며 1970年末에는 44억달러로 엄청나게 增加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輸出의 急伸張은 戰後의 設備投資의 급격한 增加로 인해 日本産業의 生産力이 擴大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世界貿易의 급속한 규모확대와 世界인플레이션으로 인해 國內都売物價上昇보다 輸出價格上昇이 더 커 輸出商品의 價格競爭力이 強化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輸入은 輸入抑制的 政策과 技術革新에 따르는 生産物單位當 原料使用度의 低下와 在庫管理 技術의 發達에 의한 在庫量의 축소 등에 의해 安定된 伸張率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日本의 比重도 급증하여 輸出은 55年度の 2.2%에서 71年 6.9%로 增加하였으나 輸入은 51年

미국과 일본의 国民總生産額(經常價格)

(單位：10 億달러)

年 度	美 国	日 本
1950 年	285.1	11.2
55 年	399.3	24.0
60 年	510.8	43.1
65 年	696.3	88.3
72 年	1,176.62	294.14
73 年	1,309.58	407.92
74 年	1,406.78	454.92
75 年	1,526.46	491.33
76 年	1,702.02	555.06
77 年	1,883.6	684.3

資料：世界銀行 年次報告 1977.

度の 2.5%에서 71 年度에는 5.4% 밖에 增加하지 않았다.

이 같이 輸出增加率이 輸入增加率을 上廻함으로써 일본의 貿易収支는 持續적으로 黒字基調를 擴大하였으며 일본의 國際収支는 先進国型으로 定着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日本은 經濟大國으로서의 責任遂行壓力이 加重되기 시작하였다.

60 年代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先進諸國으로부터의 壓力으로 日本은 1960 年 6 月 貿易外換自由計劃 大綱을 策정한 이후

점차 輸入自由化를 추진해 왔으며 1964년에는 IMF 14 條國에서 8 條國으로, GATT 12 條國에서 11 條國으로 轉換하고 OECD에 加盟함으로써 經常去來 및 資本去來에 관한 自由化 原則을 준수하는 의무를 지게되어 日本의 貿易政策은 開放體制로 轉換하였다.

그러나 戰後의 日本貿易政策의 基本方針이었던 外貨取得 또는 取得外貨의 有効利用의 原則은 60 年代에 걸쳐 계속 固守되었다. 즉 어느정도 輸入自由化를 推進하였지만 輸入을 適切히 統制하면서 輸出의 極代化를 기한다는 貿易政策의 基調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70 年代 들어와서 世界通貨秩序는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71年 8月 15日 美國이 金兌換停止를 宣言함에 따라 IMF 體制는 崩壞하여 엔貨는 스미소니언 협정에 따라 달러당 308 엔으로 16.8%를 切上하게 되었다. 더우기 1973 年에 들어와 오일파동이 일어나자 國內物價는 급격히 上昇하였고 1974 年에는 100 億달러에 달하는 國際收支의 赤字를 經驗하는 등 日本經濟는 70 年代에 많은 시련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록 73 年~75 年期間동안 綜合收支는 赤字를 나타냈을지라도 貿易收支는 계속 黒字를 나타냈으며 이 期間동안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實質成長率도 훨씬 높게됨에 따라 外國으로부터의 非難의 禍살을 받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이렇게 日本經濟가 世界經濟不況속에서도 줄기찬 成長을 할 수 있었던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엔貨上昇圧力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히 회피하는 政策에 依해 日本産業은 保護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70 年代 初의 계속적인 黒字의 累積과 이에 따른 世界經濟

로부터 가해지는 貿易自由化圧力과 円貨切上圧力を 완화하기 위해 1971年, 1972년에 걸쳐 輸入促進, 輸出抑制 및 海外經濟協力の 推進을 主要 内容으로 하는 円貨対策이 発表되고 施行되었지만 이러한 対策은 日本의 經濟 내지는 産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輸入自由化도 實際 適用品目數나 그 品目이 全体輸入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극히 적은것에 한정되고 있어 그 實際的인 効果는 대단하지 못하였다. 결국 日本은 輸出促進 및 國民經濟的 觀点에서의 輸入規制라는 貿易政策의 基本方針을 계속 고수하여 經濟先進国으로서의 責任을 회피하고 隣近窮乏化的인 政策手段으로 自國의 成長만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5년에 들어오면서 世界經濟는 오일파동의 惡夢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回復勢를 反映하여 日本은 1976年 100억달러에 가까운 貿易収支黒字를 나타내었고 1977년에는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175억달러의 엄청난 貿易収支 黒字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国内景氣의 回復을 수출 드라이브에서 찾으려는 日本의 努力이 世界景氣가 回復됨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日本 貿易政策은 自國의 幼稚産業保護와 斜陽産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數量制限과 関稅賦課를 적절히 混用하여왔다. 즉 數量制限의 직접적인 규제가 外國으로부터 非難의 대상이 되면서 輸入門戶를 開放하지 않을 수 없어 數量制限을 점차 철폐하는 대신 関稅賦課로 규제방식을 交換하여 갔다. 이러한 関稅賦課는 原資財에 대해서는 無関稅 또는 극히 낮은 関稅率을 賦課하며 加工度가 높은

製品일수록 높은 關稅率을 賦課하는 「傾斜關稅」(tariff escalation) 構造를 취하고 있어 「實効保護關稅率」(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이 表面化되는 名目關稅率 보다 훨씬 높은 迂廻的 保護方式을 사용하였다. 또한 케네디·라운드의 關稅引下에 따라 日本도 關稅를 引下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기타 輸入制限 조치로서 關稅引下의 效果를 相殺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日本은 輸入自由化의 壓力에 대처하여 극히 國際競爭力이 높은 部門이나 品目에 대하여 輸入自由化를 실시하여 왔고 實効保護率이 높은 關稅政策을 취해왔기 때문에 國內産業은 自由化에 따른 國際競爭力에서 지탱할 수 있었다. 더우기 日本의 非關稅障壁은 日本의 輸入自由化를 교묘히 相殺하게 하는 強力한 保護手段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非關稅障壁은 世界로부터 強力한 非難을 받게 되었다. 이 非關稅障壁은 輸入割当制, 國家貿易品目, 自動承認制, 標準外換決濟制度 및 輸入担保金制度의 直接的인 規制와 內國消費稅, 安全基準 等の 間接的인 規制 以外에도 政府의 民間部門에 대한 外來品 使用 抑制 적극 권장 등 外國製品에 對한 選好度를 가급적 줄이려는 政府政策이 커다란 輸入抑制의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保護主義的인 政策은 失業의 輸出과 隣近窮化的인 것이고 世界貿易의 均衡있는 伸張을 沮害하게 됨으로서 非難을 받아 당연한 것이다. 더우기 各國經濟의 相互依存關係가 점차 深化되어가는 오늘날 日本의 國內産業調整負擔을 可能한 限 外國에 轉嫁하려 하는

態도는 現今의 美·日間の 貿易戰爭의 커다란 要因이 되고 있다.

나. 日本의 累積的 國際收支 黒字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의 經濟政策은 国内景氣浮揚을 輸出드라이브에서 찾으려는 것이며 따라서 貿易政策은 輸出擴大, 輸入抑制가 그 根幹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輸出은 점차 커다란 規模로 擴大하게 되고 輸入은 輸出增加率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國際收支는, 점차 黒字幅이 넓혀져 갔으며 그 결과 1977년에는 175억달러라는 엄청난 貿易收支黒字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黒字國責任의 壓力이 한층 더 強力히 대두되었으며 특히 美國과의 심한 貿易不均衡은 美·日通貨 貿易戰爭을 유발하게 되었다.

日本의 國際收支黒字의 累積은 貿易收支의 黒字增大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貿易收支黒字의 增大는 日本經濟의 強力한 對外競爭力에 의하고 있다.

經濟가 成長하는 가운데 強力한 國家의 保護를 받아들인 産業은 높은 對外競爭力을 가지면서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이다.

戰後 日本은 韓國戰爭으로 인한 特殊需要에 힘입어 黒字를 기록한 1950年을 제외하고는 1957년까지는 계속 貿易收支의 赤字를 示顯하였다. 이것은 日本이 戰後 지속적인 成長을 하였지만 아직 戰爭으로 疲弊된 經濟가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였고 특히 加工貿易의 形態를 취하고 있는 日本의 生産·貿易構造는 原料輸入으로 因하여 輸入規模가 아직은 輸出規模를 上廻하고 있었고 外換不足으로

美国과 日本의 貿易增加率 推移

(单位 : %)

	1960 -12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輸出(經常價格)								
美 国	7.5	14.3	2.1	13.0	44.0	38.2	8.8	7.5
日 本	17.6	20.6	24.4	19.2	29.0	50.2	4.1	22.8
輸出(不變價格)								
美 国	5.6	8.2	-0.1	9.7	23.2	7.9	-2.7	3.8
日 本	18.0	24.2	20.9	6.6	5.4	16.8	-1.4	25.7
輸入(經常價格)								
美 国	11.5	10.8	14.0	22.0	25.0	44.3	-4.3	25.1
日 本	14.8	26.0	4.2	19.3	62.6	61.8	-6.9	13.0
輸入(不變價格)								
美 国	11.5	3.5	8.4	13.6	6.1	-4.0	-11.6	21.7
日 本	14.8	19.1	Negl.	13.3	27.8	-2.3	-13.1	11.6

資料 : GATT 年次報告, 1977

因한 輸入原料의 充分하지 못한 供給은 生産의 不足을 가져와 輸出增大를 抑制하였으며 이것은 國際収支 赤字를 가져와 다시 外換의 不足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經常収支는 美国의 원조에 의한 移轉収支 黒字에 의하여 48년부터 53년까지 계속 黒字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1957年以後

移轉収支가 대체로 赤字의 크기를 나타낸것 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日本の 國際収支 (IMF 方式)

(단 위 : 백 만 달 러)

年 度	經常収支	貿易収支	短期資本収支	誤差및漏落	綜合収支
1946	-78	-236	-	-3	-58
1947	-46	-266	-	14	66
1948	75	-282	-	27	105
1949	207	-198	-	-11	179
1950	476	38	-2	49	434
1951	329	-287	-10	8	369
1952	225	-407	-22	1	186
1953	205	-790	37	2	-379
1954	-51	-426	9	13	2
1955	226	-53	-76	-19	284
1956	-33	-131	51	11	0
1957	-620	-401	-57	20	-503
1958	264	370	23	37	394
1959	361	362	60	57	144

資料 : IMF 年次報告, 1977

1958년부터 世界景氣가 회복하기 시작함에 따라 日本의 貿易收支와 經常收支는 黒字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60年代 들어와서 日本의 國際收支는 高度成長政策에 의한 輸入需要增大로 因해 1961年과 1963年에 貿易收支赤字를 나타내고 61~64年동안의 經常收支는 계속 赤字를 示顯하였다. 그러나 1965년부터는 輸出이 급속히 增加하여 貿易收支는 다시 黒字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967년에는 드디어 輸出이 100억달러를 돌파

日本의 國際收支

(단위 : 백만달러)

年 度	經常收支	貿易收支	短期資本收支	誤差및 漏落	綜合收支
1960	143	268	-16	33	105
1961	-982	-558	21	20	-952
1962	-48	401	107	6	237
1963	-780	-166	107	45	-161
1964	-480	377	234	10	-129
1965	932	1,901	-61	-51	405
1966	1,254	2,275	-64	-45	337
1967	-190	1,160	506	-75	-571
1968	1,048	2,529	209	84	1,102
1969	2,119	3,699	178	141	2,283

資料 : IMF 年次報告, 1977

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日本의 國際收支가 黒字基調로 접어들어가게 되어 赤字国으로 부터의 壓力이 表面化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外貨의 切上壓力도 加重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要因이 뒷받침 되어 1971年 8月 美國의 金兌換停止宣言 以後 8月末에는 달러당 340 엔으로, 12日의 스미소니안 협정에 의하여 다시 달러당 308 엔으로 切上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輸出은 계속 호조를 보여 1971년에는 200억 달러가 넘는 輸出을 達成하게 되었다.

1973年度의 油價暴落은 世界景氣를 後退의 局面으로 접어들게 하였으며 또한 美國의 穀物凶作은 原油價格上昇과 더불어 世界原資 財價格上昇에 부채질 하였다. 따라서 一次商品의 輸入依存度가 높은 日本은 大幅的인 輸入의 增加와 함께 海外需要 減退에 따른

日本輸入商品構造推移

(單位：%)

品目 \ 年度	1955	1959	1963	1970	1976
總 額	100.0	100.0	100.0	100.0	100.0
食 料 品	25.4	13.8	16.2	13.6	14.5
原 料	48.5	45.5	35.4	35.4	20.3
鉸物性燃料	11.8	15.4	18.0	20.7	43.7
工 産 品	11.8	21.3	24.1	29.8	20.7
機 械	5.4	9.8	11.9	12.2	7.1

資料：日本通商省, 1977

輸出不進으로 貿易收支가 大幅減少하여 經常收支와 綜合收支가 赤字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收支赤字는 貿易外收支와 長期資本收支의 大幅的인 赤字에 主로 基因하고 있다. 反面에 貿易收支는 그 黒字幅이 油價暴落 以前에 比해서 현격하게 減少되기는 하였지만 계속 黒字를 나타냄으로써 1964年 以來의 黒字趨勢를 계속 유지하였다.

日本의 國際收支 (IMF方式)

(單位: 백만달러)

項目 \ 年度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貿易收支	3,963	7,787	8,971	3,688	1,436	5,108
輸出	18,969	23,566	28,032	36,264	54,480	54,822
輸入	15,006	15,779	19,061	32,576	53,044	49,714
貿易外收支	-1,785	-1,738	-1,883	-3,510	-5,842	-5,431
移轉收支	-208	-252	-464	-314	-287	-357
經常收支	1,970	5,797	6,624	-136	-4,693	-680
長期資本收支	-1,591	-1,082	-4,587	-9,750	-3,881	-288
基礎收支	379	4,715	2,037	-9,886	-8,574	-968
短期資本收支	724	2,435	1,966	2,407	1,778	-1,166
誤差 및 漏落	271	527	638	-2,595	-43	-542
綜合收支	1,374	7,677	4,741	-10,074	6,839	-2,676

資料: 日本通商省, 1977

1975年 들어와 世界景氣는 오일쇼크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여 日本商品의 世界市場에서의 需要가 增加하기 시작한 반면에 輸入은 減少하여 貿易收支의 黒字幅이 增加하였다.

1976년에 들어오면서 日本의 輸出은 다시 急激히 增加하기 시작하여 사상 유례없는 거의 100억달러에 달하는 貿易收支를 示顯하게 된 反面에 대부분의 先進國 特히 美國의 경우에는 國際收支赤字가 계속 增加하게 됨에 따라 日本의 엔貨는 오일파동 期間동안 그 價値가 下落하였던 趨勢에서 벗어나 다시 切上의 高개를 들기시작하였다. 이러한 切上壓力과 輸出抑制의 壓力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는 드디어 貿易收支黒字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170억달러를 넘어서고 綜合收支도 유례없는 77억 달러가 넘는 黒字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國際收支 黒字는 日本의 外貨保有高를 77年末 200억 달러를 넘어서게 하였고 71년부터 急上昇하기 시작한 엔貨의 換率에도 불구하고 78年에도 日本의 國際收支는 계속 黒字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77年度の 엄청난 日本의 國際收支 黒字는 日本으로 하여금 엔貨 急騰에 對한 대처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77年11月과 78年 1月の 美·日 通商會談, 關稅引下, 輸入規制殘存品目的 一部 自由化 等を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긴급대책에도 불구하고 78年の 輸出은 伸張趨勢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日本の国際収支(国際収支基準)

(단위 : 백만달러)

項目	年月日	1976	1977
貿易収支		9,887	17,490
輸出		66,026	79,300
輸入		56,139	61,810
貿易外収支		-5,806	-6,059
移転収支		-340	-386
經常収支		3,680	11,045
長期資本収支		-984	-3,167
基礎収支		2,696	7,878
短期資本収支		111	-649
誤差 및 漏落		117	514
綜合収支		2,924	7,743

資料 : 日本通商省, 1977

美国과 日本의 对外準備

(單位：10 億 달러)

年 月 末	美 国	日 本
1971	13.19	15.36
1972	13.15	18.37
1973	14.48	12.25
1974	16.06	13.52
1975	15.88	12.82
1976	18.32	16.61
1977	19.39	23.26
1975. 3	16.65	14.15
6	16.53	14.61
9	15.89	13.27
12	15.88	12.82
1976. 3	16.46	14.18
6	17.90	15.40
9	18.47	16.49
12	18.32	16.61
1977. 1	18.57	16.71
2	18.64	17.05
3	18.67	17.23
4	18.44	17.55
5	18.76	17.57
6	18.77	17.71
7	18.59	17.96
8	18.63	18.16
9	18.58	18.26
10	18.79	19.98
11	18.93	22.55
12	19.39	23.26

資料：日本通商省, 1977.

이렇게 日本輸出이 抑制措置와 恩貨의 切上에도 불구하고 계속 增大되고 있는 것은 日本의 輸出商品의 價格彈力性이 非彈力的이라는데 그 根本的 原因이 있다. 즉 日本은 重化學工業을 적극 육성하여 輸出商品의 構造를 高度化시켰고 日本 特有의 勞使關係와 先進技術의 재빠른 흡수와 모방, 계속된 技術革新,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막대한 企業家精神 等の 非價格競爭力에 依해 日本商品의 國際競爭力이 계속 優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主要輸出商品構成推移

(單位: %)

	1955	1960	1965	1970	1976
全 商 品	100.0	100.0	100.0	100.0	100.0
織 維 品	46.5	30.1	18.7	12.5	6.3
重化學工業 製 品	38.0	43.7	62.0	72.4	84.1
機 械, 器 機	13.7	25.4	35.2	46.3	58.9
鐵 鋼	12.8	9.6	15.3	14.7	15.6

資料: 日本通商省, 1977

더우기 恩貨切上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日本商品의 달러表示 輸出價格은 上昇하였을지라도 外國商品과의 相對價格은 별로 上昇하지 않은 것도 一要因이 되고 있다.

反面에 日本의 輸入構造는 日本의 輸出産業이 加工輸出構造를 가

짐에 따라 一次商品 特히 鉍物性燃料의 輸入이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農産品의 경우에는 国内農業部門을 保護한다는 구실로 国内價格이 外国商品의 價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輸入開放을 하지 않고 있어 農産物 輸出國家인 美國의 비난이 加重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國際收支 黒字의 계속적인 累積은 特히 美國과 심한 不均衡을 가지고 있다. 日本은 日本대로 自國産業을 保護한다는 구실로 적극 黒字幅의 감축에 根本적인 努力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美國은 自國의 國際收支赤字의 對日偏重을 더 以.는 방치할 수 없는 現實은 美·日間의 피할 수 없는 紛争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다. 美國의 大規模 貿易赤字와 對日逆調의 深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속의 不安한 國際通貨秩序 속에서 換率의 變動은 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日本의 國際收支黒字는 계속 增加되고 있으며 이러한 黒字의 상당한 부분이 美國에 偏重됨으로써 美國은 日本에 對해 強力히 不均衡 解消를 要求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不均衡이 根本적으로 解消될 展望이 甚사리 보이지 않고 있다.

美國은 20세기 들어와 世界 第一의 工業國으로 成長하였고 2次 大戰이 끝난후에는 世界의 支配적인 位置를 가지고 있었다.

1940年代까지도 지속적인 輸出增大에 의해 계속 絶對적인 優位를 堅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年代 들어오면서부터 막대한 軍費

世界에서 짐하는 美國貿易比重

(단위: 백만달러, %)

	1938	1948	1955	1965	1971	1975
*世界輸出(F.O.B)	23,500 (100.0)	57,300 (100.0)	93,100 (100.0)	186,400 (100.0)	348,100 (100.0)	866,300 (100.0)
美 國 輸 出	3,064 (13.0)	12,445 (21.9)	15,430 (16.6)	27,189 (14.6)	43,492 (12.5)	106,157 (12.3)
*世界輸入(C.I.F)	25,400 (100.0)	63,500 (100.0)	97,800 (100.0)	197,400 (100.0)	364,100 (100.0)	896,700 (100.0)
美 國 輸 入	2,180 (8.6)	7,163 (11.3)	11,410 (11.7)	21,348 (10.8)	45,516 (12.5)	102,984 (11.5)

資料: GATT 年次報告, 1977

註*: 아시아 共產圈 상호무역 제외

支出과 日本과 西歐諸國의 經濟復興에 따른 世界經濟에서의 支配的 優位 喪失에 의하여 輸出增加率이 減少하고 輸入增大率이 커짐에 따라 世界輸出에서 차지하는 美國輸出의 比重이 점차 下落하는 趨勢로 反轉하였고 反面에 輸入比重은 增大하였다.

60年代 들어와서도 世界輸出에서 차지하는 美國輸出의 比重下落은 계속된 反面 輸入은 年平均 10.2%를 기록함으로써 世界貿易의 年平均 伸張率을 上廻하였다. 즉 60年代에 美國의 輸出伸張은 鈍化되는 推移를 보인 反面 輸入은 加速化 되었던 것이다. 60年 중반의 월남전 擴大에 의한 過熱景氣에 의해 輸入은 急增하였다.

그 결과 戰後 巨額의 黒字를 示顯하였던 美國의 貿易收支는 이러한 輸出 伸張率과 輸入 增加率의 격차 확대로 60年代 後半부터 점차 그 黒字幅이 감소하는 傾向을 나타내었고 70年代 들어와서 마침내 1971년에는 美國史上 最初로 20.47억달러의 赤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50年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美國輸出의 相對的 鈍化는 美國이 傳統的으로 國際市場에서 優位를 차지하고 있었던 主要商品의 國際競爭力이 弱화된데 基因하였다. 즉 高度로 技術이 發達하고 精密한 航空機, 化學部門에서는 美國이 계속 優位를 차지할 수 있었으나 鐵鋼, 自動車, 電子製品等に 있어서는 日本과 같이 重化學工業化를 指向하는 나라들이 쉽게 競爭隊列에 참가할 수 있었고 國內인플레이션傾向에 의한 輸出價格上昇과 勞動生産性上昇의 鈍화로 因해 國際競爭力이 크게 弱화되었기 때문이다.

70年代 들어와서의 달러貨 價值下落과 國際經濟의 多極化는 美國의 世界經濟에서의 地位를 엄청나게 下落시키게 되었다.

1977年에 日本이 170억 달러가 넘는 貿易收支 黒字를 보인 反面에 美國은 360억달러가 넘는 貿易收支赤字幅을 示顯하였다.

이러한 貿易收支의 커다란 赤字는 輸出이 점차 鈍化된데 비해 輸入이 急増한데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輸入은 主로 人爲的인 增加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때 貿易收支不均衡은 일단 輸出面의 격차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즉 價格面에서의 國際競爭力을 살펴보면 1975年을 基準으로 하여 輸出單價指數를 100 이라고 할때 美國의

美國의 國際收支推移

(單位：10億달러)

	1960	1965	1970	1974	1975	1976	1977
輸 出	20.6	27.5	43.2	98.5	107.6	115.0	120.2
輸 入	16.4	23.2	42.4	108.0	103.4	129.6	156.7
貿易收支	4.2	4.3	0.8	-9.5	4.2	-11.6	-36.5
經常收支	1.7	4.3	-0.4	-5.0	11.6	-1.4	20.2

資料：日本通商省, 1977

(註)：* 輸出은 FOB

輸入은 CIF

美·日·独의 輸出入 單價指數

(1975 = 100)

	輸 出			輸 入		
	美 国	日 本	西 独	美 国	日 本	西 独
1960	46.3	69.4	67.6	39.8	45.8	77.0
1965	48.8	58.7	71.3	40.0	46.7	76.1
1970	56.7	66.6	75.9	46.3	48.7	77.8
1971	58.6	66.8	77.8	48.7	49.6	77.0
1972	60.3	65.6	78.4	52.3	45.9	75.0
1973	70.4	71.2	81.1	61.6	51.6	79.9
1974	89.4	98.2	93.2	92.6	91.7	100.1
19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6	103.6	98.1	102.0	103.2	122.5	103.5
1977	108.6	101.7	103.4	111.6	141.6	104.2

資料：日本通商省，1977

경우 1960年 46.3에서 1977年 108.6으로 약 2.3배 上昇한데 비해 日本은 69.4에서 101.7로 약1.5배 西独의 경우 67.6에서 103.4로 약1.5배로 上昇하여 價格面에서의 國際競爭力이 日本과 西独에 비해 훨씬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單位当 勞動費用 上昇率의 경우 美国은 주로 勞動生産性의 向上이 부진하여 1970年~73年の 3.3%에서 1974~77년에는 5.1%로

높아진데 비해 日本은 賃金上昇勢의 지속으로 7.2%에서 11.2%로, 西獨은 勞動生産性的의 向上과 賃金上昇率의 鈍化로 5.9%로 오히려 下落하였다. 따라서 美国商品의 國際競爭力이 이러한 점에서만 살펴볼지라도 日本과 西獨에 비해 相對적으로 低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美国은 이러한 大幅的인 収支赤字를 메우기 위하여 輸出拡大, 輸入抑制를 強求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美国貿易収支 不均衡의 原因을 日本과의 貿易収支赤字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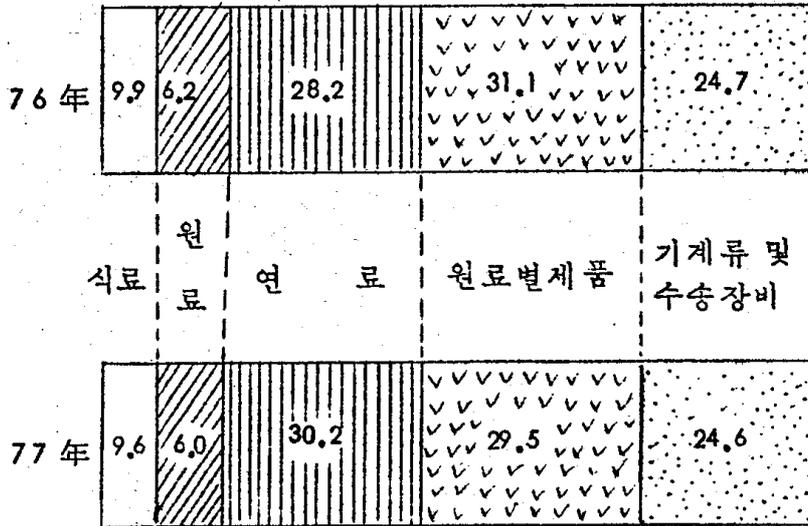
美国의 石油輸入推移

(단위: 10억 달러)

	石 油	非 石 油	計
1976 上	14.4	42.1	56.5
下	17.8	46.2	64.0
1977 上	21.3	51.3	72.5
下	20.9	53.1	74.1
1976	32.2	88.5	120.7
1977	42.1	104.7	146.8
(前年比增加率)	(31)	(18)	(22)

資料: 日本通商省, 1977

美国의 品目別 輸入構造



資料：日本通商省, 1977

美国의 海外石油依存度は 1970年の 22.7%에서 77년에는 30%로 급속히 上昇하였고 石油 輸入額 역시 登귀하여 石油輸入額은 76年 340억 달러에서 77年 445억 달러로 무려 31%나 增加하였다. 石油類輸入의 增加는 77年の 혹한에 依한 消費增加와 国内의 備蓄需要增大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중 備蓄需要 增大는 貿易収支赤字에 의한 달러가치 下落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美国側도 責任을 面할수만은 없다. 실제로 「카터」 美大統領 마저도 「메이커의 石油輸入 및 備蓄은 그 자체가 商業 行爲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고 기실 이러한 행위가 美国의 安 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石油備蓄을 두둔하고 있으며

「블루멘탈」財務長官도 「美國의 貿易赤字가 아무리 크다해도 安定된 資本의 流入이 적자폭 만큼 있으므로 美國의 國際收支는 전반적으로 健全하다」고 강조하고 「各國의 通貨價值는 제각기 自己 나라의 經濟條件을 배경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하여 美달러 價值下落을 人爲적으로 바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유독 貿易收支赤字를 내세우면서 日本에 강경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地域別 貿易去來中 日本에 대해 貿易赤字가 偏重되어 있다는 점이다.

美國과 日本의 貿易關係는 二次大戰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의 兩國間의 貿易은 美國이 압도적으로 貿易收支黒字를 내고 있던 不均衡한 것이었으나 戰後 日本의 貿易은 대부분 美國에 偏重되어 있었고 疲弊된 經濟의 復興을 위하여서 輸入이 輸出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兩國間에는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0年代 들어오면서 부터 世界의 經濟는 多極化 現象을 露呈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美國輸出의 增加率이 減退되기 시작한 반면에 日本經濟는 輸出増大의 지속에 힘입어 착실한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美·日間의 貿易收支不均衡은 점차 그 幅이 좁아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1965년에는 美國이 日本에 대해 史上 처음으로 貿易收支赤字를 실현하게 되었다.

美國의 日本에 對한 收支赤字는 1974년에 이르기까지 그 幅이 계속 확대되어 갔다.

日本의 對美輸出은 重化學工業製品을 위주로 展開되어 77年度에는

对美総輸出中 약 87%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对美輸入은 주로 食品 및 直接消費財와 工業原料가 77年度에 对美総輸入額中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日本对美貿易은 所得弾力性이 높은 商品을 주로 輸出하고 所得弾力性이 낮은 商品을 輸入하는 構造를 취하고 있어 日本商品의 对美輸出은 美国의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크게 增加할 수 있었으나 輸入은 그렇지 못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 美·日間の 貿易収支는 커다란 變動幅을 나타내었다. 즉 1969年度の 日本의 对美貿易収支 黒字가 약 8.7억 달러였던 것이 1971年度에는 國際通貨体制의 動搖와 同年 8月の 美国의 金兌換中止宣言은 달러貨의 信認度를 급격히 下落시켜 美国의 換物心理가 一面 作用하여 輸出이 急増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1972年度の 日本의 对美 貿易収支黒字는 1973年度에 들어와 1.8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것은 日本의 国内景氣上昇에 의한 輸入의 大幅的인 增加와 日本商品의 对外競争力 弱화에 따른 輸出增加率의 下落에 기인하고 있다.

1975년에는 日本이 4.6억달러의 对美貿易収支赤字를 기록하여 美·日間の 貿易不均衡이 거의 縮小 또는 小幅의 振動을 하는가 했는데 1976년에 들어와서 무려 39억달러에 달하는 对美貿易収支黒字를 기록함으로써 美·日間の 貿易·通貨紛争에 또다시 불을 붙였으며 1977년에는 76억달러에 이르는 对美貿易収支黒字를 기록하여 日本全体 貿易黒字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日本의 貿易収支는 1975年을 제외하고는 1965年 以来 계

日本의 对美 輸出入 推移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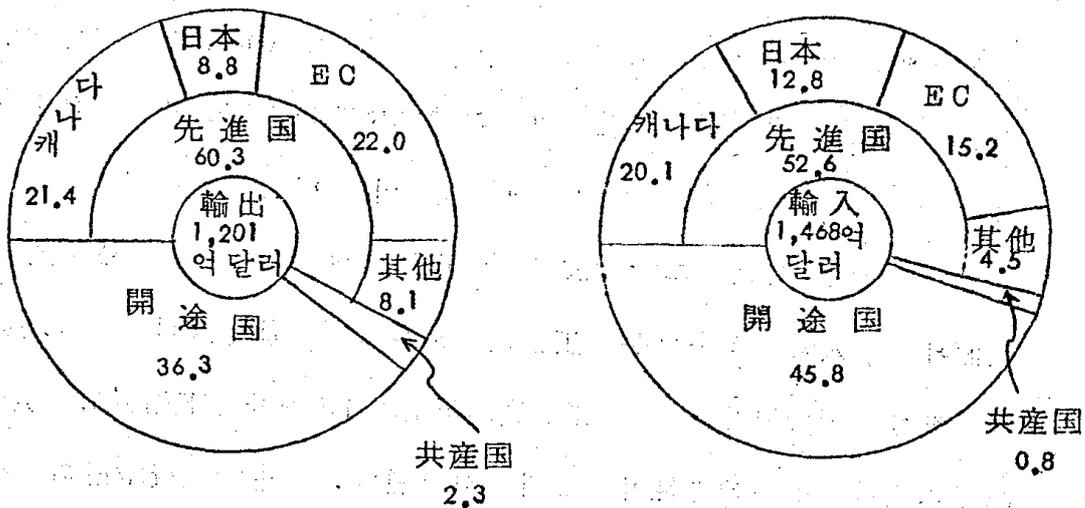
年 度	輸 出	輸 入	貿 易 収 支
1968	4,086	3,527	559
1969	4,958	4,090	868
1970	5,940	5,560	380
1971	7,495	4,978	2,517
1972	8,848	5,852	2,996
1973	9,449	9,270	179
1974	12,799	12,682	117
1975	11,149	11,608	-459
1976	15,690	11,809	3,881
1977	19,714	12,159	7,555

資料 : 日本通商省,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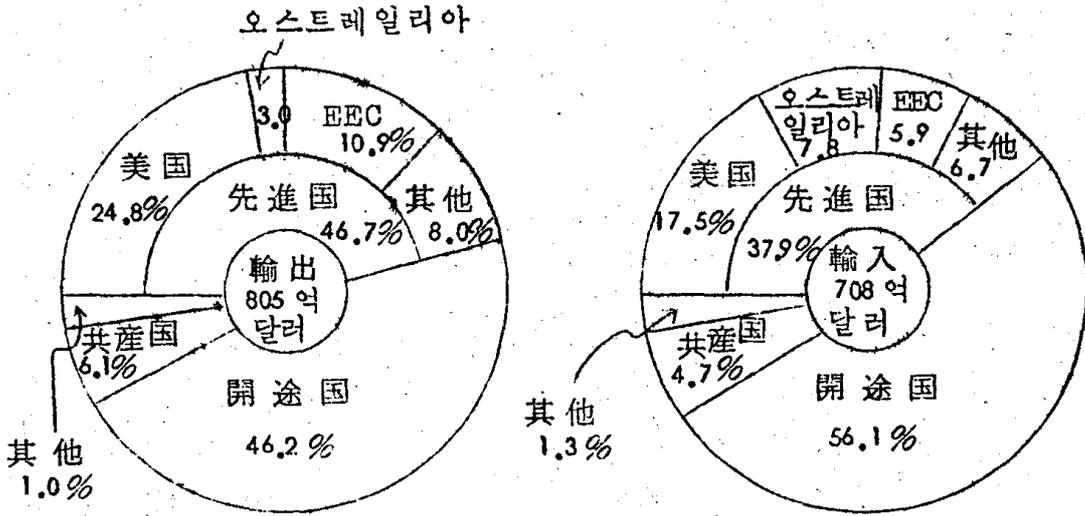
속 黒字를 유지하면서 그 幅이 넓어져 왔고 76年 以後에는 엄청난 不均衡幅의 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또한 日本의 貿易収支 黒字가 주로 美国에 依存하고 있다는 점이 美国으로 하여금 日本에 对해 貿易収支 黒字幅의 縮小를 要求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地域別로는 1977年度에 日本이 美国輸出의 8.8%, 輸入의 12.8%, 美国이 日本輸出의 24.8%, 輸入의 17.5%로 나타나고 있어 地域別로도 美国에 对해서는 日本의 輸出比重이 輸入比重보다 크고 日本에 对해서는 美国의 輸入比重이 輸出比重보다 큰 不均衡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美国의 地域別 輸出入構造 (1977年)



日本の 地域別 輸出入構造 (1977 年)



資料 : 同 上

品目別로 살펴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對美輸出中 重化学工業이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戰略輸出商品인 自動車가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텔레비존이 39.8%, 라디오의 33.7% 鐵鋼의 22.0%로 그 構成이 所得彈力性이 높은 商品으로 되어있다. 反面에 輸入의 경우에는 工業用 原料가 全体輸入의 약 50%, 食品 및 직접 消費財가 약 28%, 資本財는 15%를 下廻하고 있어 輸入品目構成이 所得彈力性이 낮게 되어있다. 한편 資本財의 경우 日本의 對美輸入比率은 상당히 높은편이나 輸入絶對額이 美国의 경우와 비교해서 약 절반에 불과하여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日本의 对美商品別 輸出現況

(1977 年 1 月 ~ 9 月中)

(單位 : 千달라)

品 目	總 輸 出	对美輸出	比 率 A* (%)	比 率 B* (%)
食 品 類	620,994	151,219	24.4	0.1
어 개 류	410,420	102,371	24.9	0.7
原料 및 燃料	496,556	33,138	6.7	0.2
輕 工 業 品	7,261,334	1,514,809	20.9	10.8
섬유 및 제품	3,359,746	487,675	14.5	3.5
(면 직 물)	283,787	24,946	8.8	0.2
(합성섬유직물)	1,112,807	120,912	10.9	0.9
비금속광물제품	817,838	244,042	29.8	1.7
重 化 学 工 業	49,102,048	12,159,766	24.8	86.6
화 학 제 품	3,137,366	361,123	11.5	2.6
(화 학 비 료)	166,747	1,314	0.8	0.0
금 속 제 품	10,296,545	2,438,906	23.4	17.4
(철 강)	7,754,574	1,703,381	22.0	12.1
기 계 제 품	35,668,137	9,359,736	26.2	66.7
(텔레비존)	1,002,675	398,779	39.8	2.8
(라 디 오)	1,783,307	601,493	33.7	4.3
(자 동 차)	8,059,320	3,350,449	41.6	23.9
(선 박)	6,348,882	168,114	2.6	2.2
總 輸 出 額	57,989,950	14,035,409	24.2	100

資料 : 同 上

註 * A는 各品目別 輸出額中 对美輸出比率

B는 对美總輸出額中 品目別 对美輸出比率

日本の 対美商品類別 輸入現況

(1977年1月~9月中)

(單位 : 千달러)

品 目	總 輸 入	對美輸入	比 率 * A (%)	比 率 * B (%)
食品및直接消費財	8,556,225	2,788,573	32.6	29.6
工業用原料	36,357,498	4,539,029	11.8	48.1
원 료	9,559,034	1,912,212	20.0	20.3
광물성연료	22,897,129	997,317	4.4	10.6
화학공업생산물	2,187,572	857,841	39.2	9.1
금 속	1,539,098	74,337	4.8	0.8
섬 유	513,862	31,895	6.2	0.3
資 本 財	3,203,410	1,639,471	51.2	17.4
일 반 기 계	1,613,434	815,235	50.5	8.6
전 기 기 계	907,330	463,039	51.0	4.9
운 송 수 단	345,412	205,657	59.5	2.2
非耐久消費財	1,102,866	140,757	12.8	1.5
섬 유 제 품	743,084	33,583	4.5	0.4
耐久消費財	942,965	247,787	26.3	2.6
가 정 용 품	58,484	8,748	15.0	0.1
가정용전기기구	70,244	20,053	28.5	0.2
승 용 차	209,478	74,700	35.7	0.8
장난감및악기	219,074	87,675	40.0	0.9
總 收 入 額	52,681,985	9,429,965	17.9	100

資料 : 同 上

註 : 輸出의 경우와 同一

以上에서 貿易側面에서의 美·日間の 貿易不均衡을 살펴보았다.
日本은 戰後 이룩한 高度成長過程에서 그 構造를 輸出指向的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賦存資源이 부족하여 原料加工型인
産業構造가 大規模經濟의 利益을 얻으면서 經濟를 發展시키기 위한
方策이 없기때문이다. 이것은 類似한 條件下에 있는 韓國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日本은 自國의 利益만을 생각했지 어
려움에 부딪친 다른나라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隣近窮乏
化的인 것인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특히 日本과 심한 貿易
不均衡狀態를 이루고 있는 美國이 그 대책을 強求하는 것은 당연
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Ⅲ. 解 決 的 摸 索

1977年 5月 런던에서 열린 제3차 先進國 經濟頂上會談에서 美國과 日本, 西獨 등의 이른바 經濟強大國들과 이들 經濟大國과 기타 經濟弱小國들로 兩極化한 世界經濟를 이끌어 均衡成長을 이룩할 수 있도록 擴大政策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機關車論」이 등장하여 이들 經濟強大國들의 높은 成長率 유지가 促求된 이래 日本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1978年 들어서서 6月 現在까지 日本의 貿易收支黑字는 17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反面에 美國의 貿易收支赤字는 240억 달러를 기록하는 不均衡의 結果를 낳고있다. 그렇다고해서 兩國間의 通商去來가 시작된 이래 問題점을 해결하기 위한 通商會談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1年에 최초로 兩國間의 貿易增進을 위한 協議가 이루어 졌으며 1960年代에 들어서서 兩國間의 貿易收支不均衡이 擴大되어 감에 따라 美國은 日本의 輸出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60年代의 日本의 纖維類 輸出이 美國의 纖維產業에 막대한 타격을 주자 1969年 日本에 對한 自律規制 要請이 있었고 그후 1972年 1月과 7月에 이에 관한 協議가 있었다.

1976年에 들어와 兩國間의 不均衡이 크게 나타나자 美國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日本에 對해 協商을 요구하여 1977年 12月 12日 ~ 14日까지 워싱턴에서 第一次 美·日通商會談이 開催된데 이어 78年 1月 11日~13日에는 東京에서 第二次 美·日 通商會談이

열려 打開策이 摸索되었다.

一次 會談에서는 서로간의 對立된 의견이 合一點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고 곧 이은 二次 會談에서는 妥協이 成立되어 共同
聲明을 채택하는데 成功하였다. 과거의 兩國間의 協議는 대체로
美國側이 日本에 대해 自律的인 規制 또는 是正을 要求한데 反해
이번 會談에서는 美國이 달러貨 價値의 지속적인 下落 放置 또는
직접적인 貿易規制를 不辭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通貨·貿易戰爭이라고 까지 일컬어 지고 있다.

美國은 先進國 특히 黒字國이 國內景氣를 자극하여 世界의 經濟
를 이끌어가야 하는 소위 이른바 「機關車論」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은 物價上昇을 두려워하여 景氣浮揚을 억제하고 있는
日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要求하고 있다. 첫째로, 日本은
效果的인 輸入擴大政策과 輸出抑制政策을 사용하여 現在와 같은 兩
國間의 大規模 不均衡을 시정하여 經常收支 黒字를 現在 規模의
30 ~ 40 %를 減少시킬것. 둘째로 農産物에 對한 量的 輸入制限을
철폐하여 輸入을 擴大할것. 셋째, 日本의 복잡한 流通構造의 複雜
한 장벽을 제거하여 輸入商品의 合理的인 配分을 도모할것. 네째
로, 最小한 78年에는 8%의 經濟成長을 達成함으로써 國內景氣를
浮揚시켜 日本國民의 構買力을 提高시키고 이에 의하여 輸入需要가
유발되어 美國에 對한 輸入을 增加시키도록 할것.

이에 대하여 日本은 內政干涉이라고 까지 반발하였으나 美國의
강경한 태도에 놀려 微溫的인 方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

퍼보면 첫째, 美国의 經常収支 均衡化時期明示要求는 不可能하므로 日本은 国内需要의 拡大를 통하여 黒字를 縮小시키도록 努力한다. 둘째, 日本은 經常収支가 赤字를 나타내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措置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製品輸入의 拡大를 위하여 美·日 貿易 円滑化委員會에서 輸入動向을 点檢하고 必要에 따라 是正策을 協議한다.

以上과 같은 基本方針에 따라 日本은 1977年 12月 14日과 78年 1月 10日에 다음과 같은 对美貿易自由化方案을 발표하였다.

- (1) 318個 品目에 對한 平均 23%의 關稅引下
- (2) 農産物 쿼터의 拡大
- (3) 78會計年度의 7% 經濟成長 實施에 의한 国内景氣의 浮揚
- (4) 主要 原資財의 輸入

兩國은 第二次 美·日通商會談에서 日本의 이러한 方案提示에 힘입어 相互間의 타협에 成功함으로써 共同聲明을 發表할 수 있었는데 그 內容을 간추려 보면 첫째, 日本의 1978會計年度의 經常収支 黒字의 大幅的인 減少, 둘째 모든 去來의 原則的인 自由化, 셋째, 78會計年度의 7% 經濟成長을 위한 모든 적절한 措置實施, 넷째, 關稅의 追加引下 검토, 다섯째, 兩國의 多者間貿易協商의 早期締結, 促進의 積極 支援과 貿易均衡을 위한 努力實施, 여섯째, 日本의 호텔용 및 일반용 牛肉, 오렌지밀감주스, 輸入증대의 4月 1日부터 施行, 일곱째, 日本의 工産品輸入 積極증대, 여덟째, 相互間의 긴밀한 協力유지, 아홉째, 5年以内로 日本의 公的開發支援(ODA)을

主要関税引下品目の内容

(단위:%)

品 目	引下以前	引下以後
자 동 자	6.4	0
컴 퓨 터	13.5	10.5
컴퓨터 Peripheral	22.5	17.5
비 행 기 엔 진	12.0	9.5
비 행 기	8.0	6.0
잔 러 필 림	16.0	11.0
모 터 싸 이 클	18.0	5.0
香 水	12.0	9.5
목 욕 비 누	10.8	8.5
인 스 탄 트 커피	20.0	17.5
자 동 차 타 이 어	10.8	8.0
레 몬 주 스	122.5	20.0
커피 원 두	25.0	20.0
포도주 (1 리터당)	320 엔	280 엔 (\$ 1.17)
Bourbon 위 스 키	28.0	24.5
Scotch 위 스 키 (1 리터당)	392 엔	343 엔

資料：日本通商省, 1977

倍以上 増大, 열째, 輸入増大를 위한 日本의 다음과 같은 조치 실시 :

① 美国으로부터의 林産業輸入擴大 및 核發電所를 포함한 發電機械 및 裝備의 구입가능성 조사를 위한 사절단 파견, ② 日本政府의 海外購買機會改善 ③ 輸入品の 檢査要件 單純化, ④ 輸入金融의 擴大, ⑤ 標準 決濟方法의 緩化, ⑥ 輸出金融의 競争的 強化規制

以上과 같은 内容으로 兩國은 共同聲明文을 作成하여 타결을 보았으나 8月現在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内容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兩國間의 긴장은 高潮되고 있는 실정이다.

近來에 들어와서의 兩國間의 意見 調整은 작년말과 금년초에 걸린 두번의 美·日通商会談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다. 1974~75年中 世界經濟가 73年の 石油波動으로 인한 景氣沈滯와 인플레이션이 同時에 發生하고 있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蔓延, 失業의 増大, 國際收支의 逆調深化 等の 어려움을 겪게되자 先進諸國은 經濟頂上會談을 통해 世界經濟의 活路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처음 先進國 經濟頂上會談(美国, 日本, 西獨, 프랑스, 英國, 이탈리아)이 열린것이 1975年7月 프랑스 랑부아에 에서 開催된 第1次 랑부아에 會談이며 國際通貨, 貿易等 美·日間의 紛争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 다루어졌으며 두번째로는 1976年6月 27日~28日 푸에르토리코의 산루안에서 先進7個國(1次會談의 6個國 外에 캐나다 참가)이 經濟頂上會談을 열어 國際收支不均衡擴大 問題, 國際通貨問題, 貿易, 投資問題 等이 다루어졌으며 日本 등에 대한 黑字國

責任論이 대두되었다. 3次會談은 1977年 5月 7日~8日 런던에서 開催되어 7個國 代表가 참석하여 國際金融, 貿易 等 美·日間의 觀心事가 論議되었으며 「機關車論」을 통한 先進國 特히 黑字國인 日本과 西獨의 景氣擴張을 위한 지속적인 成長政策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세번에 걸친 先進國經濟頂上會談은 世界經濟가 當面한 諸問題點에 對해 구체적인 解決策을 제시하지 못해 別다른 成果를 나타내지 못한채 各國의 不均衡은 더욱 深化되어 왔으며 世界通貨秩序는 더욱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對처하기 위한 새로운 活路의 發見이 시급히 요망되어 今年 7月 16~17日 兩日間 西獨의 首都 「분」에서 第4次 經濟頂上會談이 이때까지의 先進7個國 首腦 및 EC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主要各國의 經濟指標

	經濟成長率 (%)		失業率 (%)		消費者物價上昇率 (%)		經濟收支 (억달러)	
	1977	1978 ¹⁾	1977	1978 1~5月	1977	1978 1~5月	1977	1978 ¹⁾
美 國	4.9	4.0	7.0	6.1	6.5	9.2	-216	-240
日 本	5.1	5.5	2.0	2.1	8.2	4.2	110.5	170
西 獨	2.4	2.75	4.5	4.8	3.9	3.0	36.5	50
英 國	1.0	2.5	5.8	5.9	15.9	9.0	1.5	25
프 랑 스	2.3	3.75	4.9	4.8	9.5	9.2	-20.5	3
캐 나 다	3.3	3.0 ²⁾	8.1	8.5	8.0	8.8	-38.4	-57 ²⁾
이탈리아	5.6	1.5	7.3	7.2	19.4	12.0	4.0	35

資料 : OECD 報告書, 1977
NIESR 報告書, 1977

註 : 1) OECD 展望 (1978.6 月)
2) NIESR 展望 (1978.5 月)

이번 「본」會談에서 發表된 共同宣言의 內容을 간추려 보면 첫째, 主要各國은 世界的인 높은 失業率의 解消를 위해 成長率 提高를 통한 雇傭機會의 創出 및 技術開發을 圖謀하고 國別經濟与件에 따라 지속적인 成長 및 安定化 대책을 강구하기로 合意를 하였고 特히 日本은 国内需要를 振作시켜 78 會計年度의 目標成長率 (7%)의 達成에 努力하고 景氣對策의 實施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둘째, 現 「에너지」情勢의 改善을 위해 主要各國은 輸入石油依存度를 減縮하고 「에너지」消費節約 및 代替「에너지」의 効率的인 開發을 積極 推進하기로 하였다. 셋째, 世界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한 世界貿易의 擴大 必要性을 再確認하고 이를 위해 開放的인 貿易体制를 維持 強化하는 한편 東京라운드(多者間貿易協商)의 協商進展過程을 밝힌 基本諒解覺書를 承認하는 同時에 今年 12月15日까지 協商을 終結시키기로 合意하였다. 特히 國際收支 不均衡의 調整을 위해 美國은 輸出增大政策을 講究하는 한편 日本은 內需擴大 및 170억 달러 規模의 緊急輸入計劃을 통한 輸入擴大를 꾀하는 同時에 暫定的 輸出制限措置의 實施를 통해 1978年의 輸出額을 1977年 水準(805억달러)으로 維持하기로 하였다. 넷째, 資本協力에 있어서는 先進國間 또는 先進國과 開發國間의 民間資本協력을 통해 海外民間投資의 增大를 꾀하고 OECD 등을 통한 資本協力 強化에 努力하기로 하였다. 特히 日本은 向後 3年以內에 公的開發援助(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倍增하기로 約束하였다. 다섯째, 國際通貨問題에 관해서는 ① 國際通貨不安의

主要因인 貿易収支不均衡是正에 相互 協力하며 ②外換市場의 動搖를 막기 위해 市場介入을 繼續하는 同時에 國際機構를 통한 國際協力を 強化하고 ③國際通貨制度의 效率的 機能遂行을 위해 IMF監視體制를 確立한다는 基本原則의 合意와 함께 최근 EC의 歐洲通貨制度의 創說을 根幹으로 하는 通貨調整努力을 再確認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번 「본」會談에서 특히 美·日間の 懸案問題에 관해 成果로 나타난 사항으로서는 달러貨의 下落防止를 위해 美國이 石油輸入減縮에 확고한 결의를 보인 동시에 日本이 黒字国 責任論에 따라 国内需要의 擴大 및 国内市場의 一層 開放을 確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본」선언의 內容도 실질적인 合意 보다는 原則의 再確認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美·日間の 通貨·貿易戰爭의 解決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面이 희망적인 面보다 크게 눈에 뜨인다 할 수 있다. 이번 회담도 구체적인 政策手段에 있어서는 以前의 3차에 걸친 頂上會談 처럼 分명한 것이 거의 없다. 美國의 石油輸入 삭감도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금년말까지 유보한채 약속만 이루어졌고 또 사실상 에너지 法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인지도, 効果的으로 시행될 수 있을런지도 크게 의문시 되고 있다. 日本도 内需振作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약속은 했으나 이번 8~9월에서야 国内市場의 門戶開放 確大 等の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하고 있고, 이 역시 日本의 對美輸入中 아주 적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쇠고기, 오렌지 輸入에 마저 農産物産業의 強力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政治的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낙관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深化되어 가고 있는 世界經濟의 혼란 속에서 이를 打開하고자 열린 「본」 회담에서의 굳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몇일 되지않아 美·日·EC 間의 貿易·通貨戰爭이 다시 격화되어가고 있고 日本도 여기에 양보하지 않고 있다.

엔貨時勢의 양등은 根本的으로는 美·日間의 貿易逆調, 日本의 大幅的인 黒字에 基因하지만 短期的으로는 國際收支赤字를 是正하지 않는 美國의 의도적인 조작에도 그 원인이 있어 美國도 이러한 분쟁의 책임을 면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엔貨의 高騰이니 國際通貨不安이니 하는 것은 모두 經濟大國들의 國內經濟与件과 相對的인 地位의 變化에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現在와 같이 各國이 自國의 利益만을 앞세울 것을 고집한다면 短期的인 措置의 施行도 결국 그 根本的인 問題點을 해결하지 못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IV. 美·日 經濟에 對한 影響과 展望

美國과 日本의 貿易紛爭에 의한 保護主義的 貿易規制의 만연은 결국 兩國의 厚生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貿易紛爭에 따른 通貨紛爭도 世界經濟秩序를 어지럽혀 均衡있는 發展을 阻害하리라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兩國은 現在 이시간에도 紛爭을 계속하고 있으며 점차 擴大되어가는 趨勢를 보이고 있고 여러번에 걸친 打決의 摸索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美國은 日本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美國側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기타 OECD諸國도 現 世界 經濟情勢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展望이 어둡다고 판단하여 美에 동조하고 있다. OECD 가맹 24 個國의 78年度 經濟成長率은 平均 3.4%로 展望되고 있으며 따라서 OECD全體의 平均失業率도 5.5%로 展望되고 있다.

兩次에 걸친 美·日 通商會談에서 美國은 日本에 대해 強경한 黒字縮小政策實施를 要求하였고 日本이 계속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保護貿易이란 수단을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日本産業의 滅亡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要求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日本全體 商品의 85%가 달러당 250엔에서 부터 어느정도 타격을 받거나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이상과 같은 通貨·

主要国の 78年度 成長率, 失業率展望

(단위 : %)

	1) 成長率展望	2) 失業率展望
美 国	4.3	6.0
日 本	6.0	2.1
西 独	3.3	4.7
프 랑 스	3.3	5.3
英 国	2.7	5.9
O E C D	3.4	5.5

資料 : 同 上

註 : 1) NIESR 展望(78. 2)

2) 各国政府発表

貿易戰爭에 견디낼 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 하겠다. 엔貨의 上昇은 價格競争力の 低下를 가져와 輸出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엔貨의 上昇이 日本의 各産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全体的으로 볼때 250 엔台 以下에서는 全体産業의 18% 가량이 輸出採算이 맞지 않는다고 했으며 200 엔台 以下에서는 90% 가량이 輸出採算이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業種別로 살펴보면 200 엔台 以下에서 輸出을 계속 할 수 있는 産業은 化学이 20% 窯業이 10%, 非鉄金屬製品이 16.7%, 一般機械가 9.5%, 電機가

業種別輸出採算性実態*

(단위: %)

	纖維	化学	窯業	鉄鋼	非鉄金屬製品	一般機械	電機	家電	輸送機械	自動車	精密機械	其他	計
回答企業数 (社)	4	10	10	16	6	21	16	7	8	6	5	3	99
189 엔	0	10.0	10.0	0	16.7	9.5	6.3	14.3	0	0	0	0	6.1
190 ~ 199 엔	0	10.0	0	0	0	0	12.5	28.6	12.5	16.7	0	0	4.0
200 ~ 209 엔	0	10.0	0	6.3	0	23.8	6.3	0	12.5	16.7	0	0	9.1
210 ~ 219 엔	0	10.0	0	0	0	4.8	18.8	28.6	0	0	20.0	0	6.1
220 ~ 229 엔	0	0	20.0	25.0	33.3	4.8	12.5	14.3	37.5	50.0	60.0	33.3	18.2
230 ~ 239 엔	25.0	10.0	0	31.3	0	23.8	18.8	0	12.5	16.7	20.0	0	17.2
240 ~ 249 엔	50.0	30.0	40.0	12.5	16.7	23.8	18.8	0	0	0	0	33.3	21.2
250 ~ 259 엔	25.0	10.0	10.0	25.0	33.3	4.8	0	0	0	0	0	33.3	11.1
260 ~ 269 엔	0	10.0	10.0	0	0	4.8	6.3	14.3	25.0	0	0	0	6.1
270 엔	0	0	10.0	0	0	0	0	0	0	0	0	0	1.0
計	100	1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1978年2月 日本通商産業省調査

18.8%, 家電이 42.9%, 輸送機械가 12.5%, 自動車가 16.7%를
나타내고 있어 化学, 非鉄金屬製品, 電機, 家電, 自動車部門이 200 엔
이하에서도 國際競爭力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들 업종은 대개 日本의 主種輸出品目들이어서 日本輸出의 價格彈力
性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纖維, 鉄鋼, 精密機械 등
은 200 엔 이하에서 견딜 수 있는 業体の 數가 하나도 없어
이들 業種이 現在의 換率下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이 나타
나고 있다. 한편 日本의 對美 輸出依存度가 23.7%란 높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달러」下落으로 인해 그 依存度가
10% 미만인 여타 先進國에 비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또한 恩貨 上昇으로 인해 철강, 섬유 등의 구조적
불황업종의 도산과 기업이윤의 축소예상은 기업투자의 부족을 가져
와 国内需要가 작년에 이어 계속 不振하리라 예상되고 있어 日本
政府의 지난 3月 25日 公共支出의 增大, 金利 引下, 住宅建築 및
民間資本支出 增大와 不況産業의 救済를 内容으로 하는 景氣浮揚策
을 發表함으로써 당초목표인 7% 成長率 達成에 대한 결의를 표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年中 日本의 實質 經濟成長率은 政府의 目
標인 7%線에 未達하는 5~6% 程度로 展望되고 있다.

1978年 日本經濟成長率展望

(단위 : %)

豫測機關展望	豫測機關展望
E C (77.10) 6.0	「三和」銀行 (78.2) 4.0 未滿
OECD (77.12) 5.0	日經센타 (78.3) 4.6
WEFA (78.1) 5.8	東京經濟研究所 (78.3) 6.0
NIESR (78.2) 6.0	日, 國民經濟協會 (78.4) 5.3

資料 : 各豫測機關報告書, 1977年度

美國의 경우 國際收支惡化와 「인플레이」率의 上昇에 따라 지난해 10日 以後 世界의 主要外換市場에서 달러貨가 繼續 下落勢를 나타냄으로 해서 1976年 12月末부터 今年 3月末까지 日本 엔貨에 대해 무려 33%나 下落하는 結果를 經驗하였다. 달러貨의 價值 下落은 國際經濟理論上으로는 美國의 國際經濟理論上으로는 美國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켜 美國商品의 對美輸出을 增大시킬것 같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의 對美輸出 主種商品이 非價格彈力的 이어서 달러價值 下落이 곧 美國의 對日輸出을 增大시키리라는 展望은 日本이 약속한 대로 經濟成長率을 提高시켜 內需를 增大시키지 않는 限 어둡다. 따라서 달러의 下落이 '換率下落→價格競爭力強化→輸出需要增大→經濟成長'이라는 一般的인 擴散過程을 거쳐 美國의 經濟成長을 도울것이라는 것은 기대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美國은 여타 先進國에 비해 낮은 1977年의 對GNP 8.0%의 輸出

依存度와 9.4%의 對GNP 輸入依存度を 갖고 있어 海外需要의 變動은 美國經濟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달러貨의 下落이 美國經濟成長에 直接的인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다.

기실 美國은 지금의 貿易赤字를 內心으로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오일에 너지戰略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달러貨 價值低落의 方觀은 日本市場을 包含한 全般的인 世界市場 점유율 擴大에도 그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現在와 같은 無政府的인 世界通貨秩序下에서 달러貨는 그 信認度を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손에 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때 現在와 같은 無秩序한 管理變動換率制度(managed Floating System or Dirty Floating System)를 적절히 이용하여 美國이 通貨戰爭을 일으키고 있는것이 이러한 所以라 하겠다. 美國은 向後에도 이러한 通貨不安을 적절히 이용하리라는 것은 現在와 같은 상태로 미루어 보아 점차 분명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달러下落이 반드시 플러스의 效果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달러下落은 美國經濟全般에 걸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迂廻的인 과정을 통하여 美國經濟成長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달러貨의 下落은 輸入商品의 價格을 上昇시켜 年平均 7%를 上廻하고 있는 物價에 더욱 위협을 주고 있어 物價上昇→勞賃引上→企業「코스트」上昇을 통하여 企業實質利潤을 縮小시키고 따라서 企業의 投資意慾을 저해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負의 效果는 지금까지 美國經濟內에 축적된

1)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확대 경향, 2) 생산성 향상보다 빠른 임금상승 템포, 3) 国民所得 增加率에 비한 企業利潤의 相對的 低調, 4) 에너지의 對外依存度 深化 및 国内開發投資의 過少, 5) 高인플레이率의 定着化 傾向, 6) 企業投資性向의 萎縮 等の 問題點과 결합하여 새로운 長期的인 景氣沈滯를 유발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이 달러貨의 下落은 美國經濟에도 해로운 요인을 가져다 줄 것으로 豫想되고 있으며 美國의 經濟成長은 租稅減免 等の 財政政策을 통한 景氣擴大政策에 힘입어 78年에는 4.5% 内外의 成長을 실현할 것으로 豫측되고 있다.

1978年度 美國經濟成長率 展望

(단위 : %)

豫測機關, 展望		豫測機關, 展望	
E C (77.10)	4.5	Business Council(78.2)	4.2
OECD (77.12)	4.25	Mcgraw - Hill (78.3)	4.8
WEFA (78.1)	4.5	UCLA(78.3)	4.8
NIESR (78.2)	4.3	DRI (78.4)	3.5

資料 : 同 上

V. 韓國經濟에 對한 影響과 對策

美달러貨의 價値가 밑바닥을 모르는 채 下落하고 있는 현재 이 通貨에 peg되어 모든 運命을 맡기고 있는 우리 經濟는 도대체 어떤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일까.

물론 美國과의 關係 및 우리와 같이 美國달러에 peg되어 있는 40 余個國과의 經濟關係에 대해서는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않을 經濟關係가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에 있다. 우리로서는 經濟開放度 經濟規模, 交易商品의 集中度등 모든 要因을 參照하여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商品輸出入, 建設用役輸出, 資本移動, 外換保有高, 國際通貨 및 貿易秩序의 면에서 日本과 기타 주요 交易相對國에 對해 言及하기로 하자.

먼저 日本에 對해서는 만만찮은 結果가 초래될 것이다. 달러價 下落에 따른 日本 엔貨의 폭등은 對日依存度가 높은 우리 經濟(重化學製品, 化學藥品, 電子製品中 高炭素網, 金屬加工機械, 再圧延손코일 등 50 여개 輸入品目은 依存度가 70% 이상에 달함)에 商品, 資本, 技術, 觀光, 市場등 여러면에 걸쳐 심각한 影響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對日輸出은 늘고 輸入이 줄어들 것이나 반드시 原論的인 結果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商品構成에 있어서의 彈力性的 차이때문에 貿易赤字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對日시설재수입에 있어 輸入推薦과정 중 이를 규제, 西歐쪽으로 輸入先을 돌리고 아울러 日本地域으로 부터 시설재 도입을 위한 外資貸付는 반드시 엔貨표시로 貸付,

환리스크부담을 업자가 지도록 하므로써 対日輸入을 억제토록 별도 조치를 취한다면 対日貿易逆調가 어느정도 是正될런지는 모른다.

第3 国市場, 특히 美国, 西欧, 中東등을 상대로한 日本의 商品, 建設用役의 輸出競争에서는 우리쪽이 유리해질 것이다. (컬러 TV 등 電子製品이나 藥器類는 벌써 注文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恩借款의 元利金 償還負擔을 가중시키고 対日輸入價格(별써 原資料값이 평균 10%인상되고 있으며 아세톤, 靑化소다, 과산화수소, PVA, 질산, 工具, 핫코일, 型钢, 古鉄등이 특히 剽價化되고 있음)을 상승시켜 国内物價를 자극시키며 이것이 다시 輸出競争力을 악화시킬 素地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西獨등 西欧諸国에 대해서는 정도는 다르나 같은 성격의 效果를 미칠 것이다. (한가지 최근의 현상은 西欧輸出業者들이 美달러表示로 수출하지 않고 自国貨로 代金を 支払토록 하므로써 換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輸入에 그만큼 不利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 된다.)

다음 달러를 가지고 海外에 旅行할때는 극히 不利하게 될 것이고 日本엔貨를 가지고 国内에 들어오는 觀光客은 유리하게 될 것이다. 外貨保有高에 있어 달러保有一边倒政策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強勢通貨의 比率을 높이는 外換오퍼레이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달러貨價値暴落은 國際通貨体制의 基調를 흔들어 國際經濟와 貿易秩序의 攪亂적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년에 125億 달러, 1991년에 1,200億달러어치를 수출할 우리 經濟로서는 상당한 조심성을 요한다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不利하다고만 단언할 수

없으나 貿易決濟의 安定이 우리에게 필요한 한 현재의 격동은 不安要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 經濟의 構造와 特性이 美國과 동일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달러에 페그된 外換率制度는 美國의 利益이 우리의 利益이 된다는 보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運命을 남에게 맡겨 남의 利益追求란 장난에 속없이 맞장구치다 주머니만 털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저으기 걱정까지 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多國通貨의 바스켓에 페그된 外換率制度를 한번 構想해 봄이 어떨지 한번 提議하고 싶다.

물론 韓國經濟는 지금과 같은 美·日間의 싸움에 수수방관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오일 쇼크以後 우리의 人間資本이 中東에 진출하여 오히려 예상외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國際通貨 貿易戰爭의 渦中에서도 日本의 貿易門戶가 美國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고 확대되는 경우 우리의 對日貿易 不均衡을 是正할 수 있는 좋은 機會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의 國際經濟史를 보면 국제통화·무역에 관련된 紛爭이 여러 번 있었고 언제나 큰 파문을 일으켜 왔었다. 특히 1930年代와 第1, 2次 世界大戰 中間期の 換率戰爭은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史實로 남아 있다. 이번의 美달러貨 價值下落政策 역시 따지고 보면 지난날의 것과 大同小異할런지 모른다. 물론 옛날의 國際通貨·貿易戰爭은 절대규모에 있어 지금의 것에 비할바 못되지

만 그 비중이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더 가공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의 通貨・貿易戰爭은 美國이 이때까지 가장 가까웠던 日本에 대한 宣戰이었고 곧 무역보복도 뒤따르리라는 데 그 첫번째의 특징이 있다. 通貨측면에서만도 美國의 경제력이 약화된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제통화체제의 취약점을 일시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그 다음의 특징이 있다. 세번째의 특징은 日本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西獨과는 제휴하면서 또 다른 西歐제국의 동조를 얻으면서 유독 日本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을 겨냥했는데, 그 이유로는 日本의 對内外經濟政策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전전한 발전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었다.

네번째의 특징은 이제 지구는 너무 좁아졌고 2兆달러니 1兆달러의 GNP國家가 늘어나 1兆달러의 國際貿易과 맞먹음은 물론 1國內의 失業者解消와 인플레이션제 또는 경제성장은 이제 다른 나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經濟變數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換率이나 通貨도 각국의 정책적 협조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등을 들 수 있다.

벌써 美國의 태도가 강경하고 日本이 이에 굴복하려는 자세가 엿보이자 外換市場에서 美달러貨의 가치가 점차 統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국제통화・貿易戰爭은 美國의 一時的戰略에 불과하고 아직도 막강한 美國經濟力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한 조만간 解消될 것으로 思料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오일・쇼크以後 各國經濟의 調整이 어떻게 마무리 되고

특히 美·日·西獨등 鉅인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國內
경제사정이 安定 또는 好轉되는 정도가 어떠한가, 이들 정부의 經
濟思想이 國益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世界經濟全體의 厚生增大에 있
는가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할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經濟의 앞날은 오직 우리의 知慧에 달려
있는 것이다. 國際經濟에서는 오직 自己能力만이 唯一한 武器이기
때문에 우리의 杼明을 극대화하고 國費를 도모하는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의 混沌이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것
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 ABSTRACT -

During the past one year, the newspapers, broadcastings and TV have reported the currency ga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Flaming Currency Game of the World Powers", "Background of Weakening Dollars", "Meaning of Rising Market Price of Yen", "Collapse of the 180 Yen Level" and "Revival of Economic War between the U.S.A. and Japan", etc. Recently, it is also reported that even some economists such as Professor Paul Samuelson presum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change rate between the US dollar and Japanese yen will drop down to the US\$1: ¥100 in a few years. Thus, it seems that the currency and trade ga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are the most close to our country, has been lasting as if it has no end seen from the point of outside view.

Since the issue itself reflectes the basic problem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as it is, it provokes our attention, and requires the close examination of what is the background and prospect of the said game or how does such game affect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as such dispute has feature which may possibly occur anywhere and any time in the futur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Korean economy,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and review thereon should be continued theoretically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Especially when our economy has remarkably been growing enormously outwardly, we have enough possibility to be an object country of such economic dispute, and in this sense, it is also considered that we are confronted with the chance that we should know correctly the features of the international currency and trade game before the matters become worse to us.

The currency and trade game is stark and cold-hearted one; especially, the national interest precedes all other things in international currency dealing to the extent of failing to decline the war if necessary.

It contains such peculiar character that the United States has recently been making a fierce attack to Japan in alliance with the West European countries, and as Japan has also been a ring leader of the aforementioned game, the latter will be driven into acute situation that either one, concession or compromise, should be chosen. -74-

Although it is much the same to either the United States or Japan, the economic challenge by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first one; such challenge by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as a link in its economic strategies shown quite often even after the oil crisis on October 2, 1973. Upon occurrence of the oil shock the United States had once threatened, through Kissinger's message, the Middle East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member countries of OPEC in the Middle East) to use the armed force.

However, the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inflation and trade balance in the developed industrial countries have been changed respectively during the past 4 years and each country has shown wide gap each other. Above of all,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st Germany and Japan have got ahead of others and the OECD countries such as England, France and Italy are still left behind.

Now, the extent of recovery among the locomotive-like nations of the world economy such as the United States, West Germany and Japan is becoming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process of various economic adjustments; the United States, therefore, arisen self-disturbance in itself, has taken aim at

Japan with its attacking arrow. The West Germany and OECD countries have also been pressing Japan i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can be said that their present weapon is the foreign exchange rate, that is, the policy of dropping down the value of the United States currency.

The fundamental conception of this model, even at the time of the fixed exchange rate system of gold-dollar standard system in 1944, was the domination of the world by the United States dollars. However, the supreme position of the US dollars was collapsed along with growth and change of the developed nations' economy and the state of anarchy without having any particular system has been retained as far as it concerned with the international currency but being concerned with neither gold, the US dollar nor SDR. We dare to say that it is the very purposeful negligence for dropping the value of the US dollars that the United States cleverly and skillfully made use of it.

Now, the economy of the world has close correlation each other and this world has gradually been narrowed to the extent that a nation's business conditions immediately influence on others.

The GNP of the United States is 2 trillion dollars, that of the Soviet is half the United States and that of Japan is somewhat less than the latter, and it is presumed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turnovers will be more than 1 trillion dollars. In comparison with such scale, it is estimated that the trade deficit by end of this year will be of the United States 30 billion dollars while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holdings of Japan and West Germany has already exceeded 30 billion dollars respectively. The figures in trade surplus in the member countries of OPEC is a little higher than 40 billion dollars.

In taking a view of that Japanese Yen currency exceeded 200 Yen level to 1 dollar and it has now broken down to 180 Yen, it can be said that the United States brought about "the 30 billion dollar war".

Following various economic strategies taken previously by the United States, it is just shown in different way with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this time; in case it is not enough, the United States will not hesitate to present the last card, which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arry out a protective

policy in its import trade business from Japan besides enforcing Japan to realize liberation of import, floating up domestic business and even renovation of economic structure.

As the current 30 billion dollars trade red figures of the United States is actually because of surplus import of oil (45 billion dollars by end of the year), it will be argued that the measures taken this time is merely a series of its strategy related to oil - energy - business - unemployment, growth, inflation - trade - currency - capital.

It can be said that such dispute between the developed industrial countries has shown ecology of neo-imperialism either in capitalism or in communism system, and as Japan has rather much fault this time, she will have no other way but making considerable concession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d West European countries.

Although the 6-Day war between Egypt and Israel, the 17-Day war between India and Pakistan and the civil war (rebellion) in Africa, etc. are all the wars caused by about several hundred dollars; whereas, the current international currency and trade war is a big war of the 30 billion dollars unit. Neither reliable friend nor hateful enemy can exist in such a big war.

Recently, it is explained that the American strategy for rise of Yen currency value has ended in failure. As Japan is the nation that imports the raw materials in view of the structure of its economy and exports the goods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imported, drop of the import price of the raw materials surpasses the rise of the price of the exporting goods; accordingly, there will be no reason that the figures in black ink of the trade will be decreased.

Since such phenomenon has actually been verified, an adjustment in international Keynesianism, by which the attitude of the United States became somewhat conciliatory and the attitude of Japan was also mollified, started to be accomplished.

However, the situation surrounded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able to be free from the serious influence caused by the United States - Japan Game, and especially we should not forget that we are now getting involved into vortex of violent shock which requires our much more wisdom and patience due to escalation of the expansion policy of neo-imperialism.

